

거듭된 선거로 행·재정 낭비 심각

선거 관련 비용만 1억원 쓰여

대학 이미지 실추 가중될 듯

제8대 총장을 선출하기 위해 쓰여지는 대학 예산이 1억원 가까이 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 재정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대학본부에 따르면 제8대 총장 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위탁금, 총장추천위 운영비, 간담회비 등으로 9908만4000원의 대학 예산을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12월 총장추천위원회 구성시기부터 오는 12월 9일 예정된 3차례의 재선거 비용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이러한 선거비용의 급증으로 다른 불용불급의 대학 예산이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비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위탁금 5724만원 △1차 선거 2290만원 △2차 선거 1144만원 △3차 선거 2290만원 (예산) ▲ 총장추천위원회 운영비 3056만4000원 △총추위 인건비 2970만원 △ 총추위 운영비(소모품·간담회비 포함) 86만4000원 ▲ 공개토론회 비용 350만원 등이

다.

선거위탁금은 대학에서 선거를 치를 때마다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선거를 치르는 과정상의 비용이다. 현재 지난 2월 치러진 제8대 총장선거 비용 2290만원은 선관위에 모두 지불된 상황이다.

또한 고경표 교수회장과 김두철 자연대학장이 제기한 '총장 재선거 공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주지법 행정부가 일부 받아들인 채 선거가 전면취소됐다. 그러나 1144만원의 선거위탁금을 선관위에 지급해야 하며, 오는 12월 9일 치러질 3차 선거비용 229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총장추천위원회 운영비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총추위 직원 인건비, 총추위 회의 후 위원들의 식사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된 간담회비 등이 포함된다. 공개토론회 및 합동연설회에 사용된 비용도 사회

자 섭외비, 방송시설 구축비 등으로 구성돼 있다.

대학구성원들의 인력 및 시간 등 행정적인 낭비도 크다. 총장임용 지연기간 동안 총추위 위원으로 임명된 교수들은 20차례의 회의를 했으며, 또 지난 8월 '제8대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을 위한 재선거 실시 여부 찬반투표'가 진행돼 그날 하루 동안 교수와 직원들도 불가피하게 행정적 절차와 선거절차를 밟았다.

무엇보다도 선거를 치르면서 보여진 도내·외 언론보도로 대학은 적지않은 이미지 실추를 감수해야 할 것 같다.

대학본부의 한 관계자는 "전국 국립대 직원들이 모이는 자리마다, 총장임용과 선거 문제 등에 대한 걱정어린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는다"면서 "대외적으로 떨어진 대학의 위상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총장이 하루 빨리 선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교수는 "어찌됐든 구성원 모두에게 불행한 시간이었다. 지금은 학교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면서 "더 이상 선거를 방해하면 역사에 큰 죄를 짓게 될 것이며 이 대학이 일부 교수의 전유물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건 기자



지난 12월 사범대학 앞에서 오색들감 홀뿌린 단풍 나무를 학생들이 보고 있다.

김도연 기자

등교길 '뺑뚱린 하늘' 본다

진입로 현수막 설치 금지... 캠퍼스 미관 해쳐

오는 15일부터 아라캠퍼스 정문부터 본관 진입도로에 현수막 설치가 전면금지된다. 그동안 아라캠퍼스 진입로부터 현수막이 어지럽게 게시돼 캠퍼스 미관을 해치고, 바람과 비로 현수막이 훼손돼 보기 흉한 모습을 했었다.

총무과(과장 부영철)는 '제주대학교 캠퍼스 이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15일부터 학내 수목에 홍보게시물 설치를 전면금지키로 했다.

총무과는 이에 따라 학내 홍보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정문동쪽 및 체육관 동쪽 게시대와 새로 설치되는 정문 동쪽, 야외박물관 서쪽, 야외음악당 북서쪽에 게시대를 설치, 대학구성원들이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 학내 게시물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각종 홍보물의 게시기간은 3일, 불특정 홍보물은 10일 이내로 하며, 게시물을 설치하는 구역별 관리기관부서에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총무과는 대학 본관, 정문, 정문동쪽, 야외음악당, 야외박



현수막은 특성상 며칠만 지나면 퇴색되고 찢어지는 등 보기 흉하게 되는데 이마저도 난립해 캠퍼스 미관을 해치고 있다.

물관, 잔디광장, 체육관 및 기타 주변 게시대의 각종 행사안내 및 홍보물을 관리한다. 또 학사관리과는 교양강의동 및 그 주변 허가 사항을 맡으며, 학생복지과는 학생회관 및 그 주변을 담당한다.

총무과 관계자는 "대학 진입로에 무질서하게 현수막을 게시하여 캠퍼스 미관을 저해하고 수목이 손상되고 있으며, 운전자의 운전 방해가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이 사안에 대해 업무협의 및 학무회의

에 보고하여 논의한 결과, 학내 수목에 플래카드 및 현수막 게시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과대학의 한 교수는 "캠퍼스에 들어서면 색깔, 모양, 크기 등 너무나 무질서하고 볼품없는 현수막 때문에 눈이 어지럽다"면서 "외부인들이 우리 캠퍼스를 보고 첫 느낌이 난감하다고 할 정도인 만큼 이번 결정을 계기로 불법 현수막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용복 대기자

제8대 총장 재선거 12월 9일

김부찬·허향진 교수 출마 유력

제8대 총장 재선거가 오는 12월 9일 치러져 새로운 총장 후보를 뽑는다.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지난 5일 오후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제8대 총장임용후보자선출 재선거일 등의 공고를 내고 총장 선거 절차를 확정했다. 추천위는 내달 25·26일 후보 등록과 선거인명부 열람 등의 절차를 밟아 12월 9일 총장 후보 재선거를 치를 계획이다.

당초 지난달 22일 재선거를 치를 예정이었지만, 고경표 교수회장 등이 제기한 '제주대 총장 재선거 공교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주지방법원이 일부 받아들임에 따라 재선거일이 전면취소되면서 오는 12월 9일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총추위는 이에 따라 후보자 공개토론회를 12월 3일 오후 2시 국제교류관에서, 상호토론회 및 합동연설회는 12월 7일 오후 2시

국제교류관에서 연다.

선거 당일인 12월 9일 오전 9시부터 1차 투표에 들어가 새 총장을 선출하게 된다. 투표는 제주대학교 체육관, 교육대학 4층 회의실, 대학병원 2층 세미나실에서 실시한다. 후보자는 정해진 선거운동기간 내에 소형인쇄물과 합동연설회 및 공개토론회,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단 허용된다.

한편 이번 선거에는 김부찬(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허향진(관광경영학과) 교수의 출마가 유력시되고 있다.

정용복 대기자

2009학년도 제5차 외국어 특별강좌 안내 Ride the waves to English. Feel it!

◇ 강좌기간 : 2009. 10. 28(수) ~ 12. 4(금) (매주 월-금, 6주 28시간)

◇ 수강신청방법 : 외국어교육원 홈페이지(http://fll.jeju.ac.kr)

◇ 수강자격을 위한 예비

- 원어민 회화강좌 100% 출석 시 다음 차수 원어민 회화 수강료의 10% 할인

- 원어민 회화 및 영어강좌 100% 출석 시 모의토익 응시자격 부여

◇ 접수기간 : 2009. 10. 14(수) ~ 10. 26(월)

◇ 수강료 입금 계좌 : 농협 954-01-024722 (예금주: 제주대학교 외국어교육원)

▶ 영어회화

단계	강좌명	강좌번호	강사	강의시간	정원	수강료	교재
초급	영어회화입문반	1	양세정	오전 6:00~6:50	15	90,000원	Handouts
		2	Naomi Stanko	오전 8:00~8:50	15	90,000원	Handouts
		3	Ryan Brown	오전 9:00~9:50	15	90,000원	Handouts
		4	Jay Ligon	오전 6:00~6:50	15	90,000원	Handouts
		5	David Martin	오전 7:00~7:50	15	90,000원	Handouts
중급	Level 2	6	David Martin	오전 8:00~8:50	15	90,000원	Handouts
		7	Louisa Frank	오전 9:00~9:50	15	90,000원	편집교재
		8	David Martin	오전 6:00~6:50	15	90,000원	Handouts
		9	Louisa Frank	오전 7:00~7:50	15	90,000원	편집교재
중고급	Level 3	10	Ryan Brown	오전 8:00~8:50	15	90,000원	Handouts
		11	David Martin	오전 9:00~9:50	15	90,000원	Handouts
		12	Ryan Brown	오전 6:00~6:50	15	90,000원	Handouts
		13	Naomi Stanko	오전 7:00~7:50	15	90,000원	Handouts
고급	Free Talking	14	Jay Ligon	오전 8:00~8:50	15	90,000원	Handouts

▶ 원어민 Writing

단계	강좌명	강좌번호	강사	강의시간	정원	수강료	교재
중급	Academic & Business Writing	15	Louisa Frank	오전 8:00~8:50	15	90,000원	Handouts

▶ Reading Club

단계	강좌명	강좌번호	강사	강의시간	정원	수강료	교재
초중급	Extensive Reading for Speaking	16	Sook-Ja Hansen	오전 5:00~5:50 (월~목)	15	70,000원	Cambridge English Readers

※ Cambridge English Readers 시리즈 중 자신의 수준과 흥미에 맞는 story book을 골라 수업시간에 30~40분 동안 사전 설정된 주제로 독서를 한 후(독자) 그 내용에 대해 영어로 이야기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6주 동안 자신의 능력에 맞게 가능한 많은 책을 꾸준히 읽어 독해 능력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말하기 능력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교재는 미리 구입하실 필요 없습니다.)

▶ 영어청취

단계	강좌명	강좌번호	강사	강의시간	정원	수강료	교재
중고급	CNN 시사영어청취	17	오성철	오전 8:50~9:50 (월~목)	30	79,000원	유니클, mp3파일

▶ 문법/작문

단계	강좌명	강좌번호	강사	강의시간	정원	수강료	교재
초급	영어즐거기기(Cinema English)	18	한영숙	오후 12:00~12:50 (월~목)	15	70,000원	한영숙의 Basic of the heart (part2)
	영어즐거기기(Grammar&Speaking)	19	한영숙	오후 1:00~1:50 (월~목)	15	70,000원	Handouts of English Grammar
중급	Grammar & Writing	20	한영숙	오후 6:00~7:50 (월~목)	15	140,000원	Understanding and Using English Grammar

▶ TOEIC RC/LC

단계	강좌명	강좌번호	강사	강의시간	정원	수강료	교재
초급	토마토 Basic 토익기초 6주완성	21	오성철	오전 8:00~8:50	40	64,000원	토마토 Basic Reading
	기초토익 문법/어휘 단기완성	22	강계유	오후 6:00~6:50	40	64,000원	편집교재
	토익 RC 200	23	임인재	오후 6:00~6:50	40	64,000원	편집교재
초중급	토익 RC 300	24	임인재	오전 8:00~8:50	40	64,000원	최신 기출문제
	해커스토익 LC	25	허성심	오전 8:00~8:50	40	64,000원	해커스토익 Listening
중급	최신기술 토익 RC	26	강계유	오전 8:00~8:50	40	64,000원	최신 기출문제
	토익 RC 400	27	임인재	오전 9:00~9:50	40	64,000원	최신 기출문제
	토익 RC 400	28	임인재	오후 7:00~7:50	40	64,000원	최신 기출문제

▶ 중국어/일본어/독일어

※ 일본어 강좌기간은 5주(11월 2일 ~ 12월 4일)입니다.

구분	강좌명	강좌번호	강사	강의시간	정원	수강료	교재
초급	중국어회화 시작1(발음부터)	29	유소영	오후 5:00~5:50 (월~목)	20	66,000원	중국어회화 (입문편, 다락원)
초중급	중국어회화 6주 완성 어법정리	30	김미순	오전 8:00~8:50 (월~목)	20	66,000원	편집교재
중급	『漢語口語實用語彙』으로 배우는 중국어회화	31	유소영	오전 8:00~8:50 (월~목)	20	66,000원	편집교재
초급	치유부터 다시 시작하는 기초일본어 (기초문법 6주 완성)	32	조지영	오후 5:00~5:50 (월~목)	20	60,000원	편집교재
초중급	일본어능력시험(JLPT)3급 (문자/어휘/문법)기출문제 / 예상문제	33	조지영	오후 6:00~7:10 (월~목)	20	84,000원	편집교재
중고급	유학독일어	34	장애윤	오후 5:00~5:50	20	84,000원	Alles Gute

학생식당에 기초영어 안내판 내걸려 민망



학생회관 식당에 설치된 영어 안내표지판에 한글도 같이 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학생회관 식당 내부에 설치된 영어표지판이 학생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제공,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영어표지판은 학생들이 영어를 접하는 환경을 늘리기 위해 지난 2006년 급식실 내부에 설치됐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교육적·효과

를 주기는커녕 오히려 영어로만 돼있는 표지판의 설치 의도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고혜인(화학과 2)학생은 “학생들이 아는 기본적인 영어단어들을 학생들은 전혀 글로벌화라고 생각지 못한다”며 “글로벌화를 생각한다면 제2외국어도 같이 표

중·일어 안내판도 고려해야

기해 놓는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장소영(국어국문 1)학생도 “학생식당에 배치된 영어단어는 대다수 학생들이 알고있는 단어라서 교육효과는 전혀 느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백영숙(음악학 4)학생은 “영어표지판이 백두관 전체에 일관적으로 설치된 것도 아니고 식당 내부에만 설치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한국어를 배우러 오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서라도 한국어와 외국어 같이 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생복지과 관계자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한글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영어로만 달아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외국어를 달아놓을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중국어와 일본어도 넣게 되면 왜 다른 외국어는 안 넣었냐는 말이 나올까봐 세계 공용어인 영어만 달아놓게 됐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 영어 표지판에 대한 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밝혀 개선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UI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달부터 본관을 비롯한 각 단과대 등의 건물에는 한글과 영어가 결합된 출출명패가 설치되고 있다. 이 출출명패는 학내구성원들과 외국인 유학생들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한글과 영어를 같이 표기한 안내판이다.

문정화 기자

“지명식 원우회장 선출은 문제”

(주)다음, 장학금 2천만원 전달

2007년 산학협약 체결



지난 8일 본관 회의실에서 컴퓨터공학과 학생 8명을 대상으로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다.

대학원 원우회가 민주적이지 못한 원우회장 선출방식과 투명하지 못한 원우회비 사용으로 대학원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대학원 원우회는 회장 선출과정에 있어 대학원생들에 선거가 아닌 전임 회장의 지명을 통해 선출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원우회비 사용에서도 회비 사용을 감사하는 기구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 내역이 대학원생들에게 공개가 되지 않고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김동주(사회학전공 박사과정) 학생은 “민주적 절차인 선거가 이뤄지지 않고 원우회장이 선출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전임 원우회장에 지명으로 선출된 회장은 그 정당성 또한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영(언론홍보학과 대학원) 학생은 “원우회비 사용에 대한 감

사기구가 존재하지 않고, 그 사용 내역까지 공개가 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학생들의 참여가 없는 원우회 활동은 그 존재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대학원 원우회는 본부에 원우회비 사용내역을 보고하지 않고 있다. 이는 대학원 원우회가 학생회처럼 학생들의 자치기구로 규정돼 본부가 운영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원우회비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다.

이에 대해 김봉규 원우회장은 “원우회장 선출방식과 원우회비 사용내역 비공개에 대한 문제점을 느끼고 있다”며 “2학기 말에 대학원 게시판 등을 통해 원우회비 사용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며, 다음 원우회장 선출에 있어서는 선거를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보배 기자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이사 최세훈, 이하 다음)이 지난 8일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컴퓨터공학과 학생 8명에게 총 2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아래는 장학금 수여자 명단.

▲컴퓨터공학과 3학년=황인철, 이혜경, 현동훈, 이승찬 ▲컴퓨터공학과 4학년=한동균, 김영작, 양준호, 정효원

한편, 다음은 지난 2007년 제주대와 산학협약을 체결하고 6월부터는 공학교육혁신센터(센터장 도양희 전자공학과 교수)와 함께 ‘Daum트랙’을 진행하고 있다. Daum트랙은 현장실습, 인턴쉽 등을 통해 인터넷 미디어 전문 인력을 발굴·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고용희 기자

이영주씨, 고교때부터 키워온 성악가 꿈 결실

수학과 졸업후 성악과 입학해 미국유학까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속담을 현실로 만든 사람이 있다. 제주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자신의 새로운 꿈을 찾아 성악가의 길을 걷고 있는 이영주(수학과 91학번) 동문이 그 주인공이다.

이 동문은 학부 공부를 마친 뒤,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성악박사학위를 취득해 오페라와 오라토리오 및 콘서트에 출연하는 등 다양한 성악활동을 벌였다. 지난 6월에는 서울 세라믹팔레스에서 귀국독창회도 가졌다. 꿈을 향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이 동문의 이야기를 서면인터뷰를 통해 들어봤다.

그는 수학을 좋아해 수학과로 입학했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음악에도 관심이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 우연히 접한 합창단 활동은 그가 음악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다.

그는 대학에 들어와서도 고전음악 동아리 ‘칼리오페’활동과 ‘솔렐 남성 중창단’활동으로 음악활동을 계속 하면서 성악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이후 성악을 해보라는 선배들의 권유로 음악학과 교수님들의 허락 하에 음악전공 수업을 수강하면서 27살의 나이에 본격적인 음악공부를 하게 됐다. 그 결과 제주 시립합창단 비상임



이영주 동문이 인디애나 대학에서 열린 ‘이탈리아의 터키인’ 오페라 공연에서 터키왕 역을 하고 있다.

단원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그는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수학과를 졸업하고 성악의 꿈을 이루기 위해 5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준비한 성악입시에 합격해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를 졸업했다. 그리고 미국유학으로 인디애나 대학에 입학해 교수님들의 도움으로 유명 베이스가수인 조르주 토치(George Tozzi) 특별 장학금과 전액장학금을 받으며 유학생활을 보냈다. 큰 꿈을 위해 내딛은 미국땅에서 그는 공부에 도움이 되는 과목 교수님들

을 찾아가 강의를 들으면서 성악공부에 대한 열정을 키웠다. “인디애나 대학에 유명 교수님들을 만나면서 내 꿈을 다지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박사과정을 거치면서 오페라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됐다. 그의 꿈을 향한 열정은 다른 사람이 4년 걸리는 박사학위를 3년 만에 끝마칠 수 있게 만들었다.

꿈을 이루기까지 여러 가지 힘든 과정도 많았지만 뒤에서 후원해주시는 부모님의 힘이 가장 컸다고 말했다.

현재 그는 오페라를 어렵게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 오페라에 대해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오페라 기획을 생각 중에 있다. 또한 지금 진행하는 일이 끝나는 대로 적절한 시기에 제주에서 독창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학생들에게 풍요로운 자연 속에서도 호연지기를 키우며 한 곳에 머물지 말고 도전하라고 말한다. “지금 힘이 드는 일을 하고 있다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반드시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믿으면서 꾸준히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정화 기자

언론홍보학과, 미디어콘텐츠 작품 공모

10월 교수매체 워크숍

언론홍보학과(학과장 박경숙)가 제8회미디어콘텐츠 경연대회의 일환으로 다음달 8일까지 작품을 공모한다.

도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대회는 학생들의 미디어콘텐츠 개발과 제작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매해 열리고 있다.

작품 접수 분야는 저널리즘, 광고, PR, 방송분야로 나뉜다. 저널리즘 분야는 르포, 탐사보도, 인물 탐구 등 다양한 형식의 기사와 소

논문이다. 광고 분야는 광고기획안, 스토리보드, 영상물, 인쇄물 형식의 광고물이면 된다. PR분야는 기업 및 관광지 홍보물 또는 PR기획안이며, 방송분야는 방송제작 영상물(기획안 포함)이다.

수상자 발표는 다음달 23일 언론홍보학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응모와 자세한 문의는 언론홍보학과 사무실(754-2940)로 하면 된다.

강보배 기자

교수학습지원센터가 교수들의 동영상자료 제작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 ‘10월 교수매체 런치워크숍’을 오는 19일부터 3일간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임교원 및 시간강사 12명을 대상으로 이미지 편집의 ‘포토샵 초급’과 동영상 편집의 ‘프리미어 초급’으로 나눠 진행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교수학습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754-2036)

open event

제주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들을 위한

[단, 제주대학교 학생증 및 교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헤어스케치 로데오점 오픈 이벤트

event 01 핼.염색 이상시 “고급 와인”과 “VIP 상품권” 증정

event 02 오픈 행사기간중 오시는 모든 분들께 “할인 상품권”과 “손소독액”증정

[행사기간 : 2009.09.27 ~ 2009.10.31 까지]

오픈이벤트 행사이벤트는 로데오점 방문고객에 한합니다.
(본 상품권은 헤어스케치 각 지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Hair Sketch

stylish hair studio

- 헤어스케치 로데오점 : 064-759-2251~2
- 헤어스케치 연동점 (본점) : 064-744-5504~5
- 헤어스케치 노형점 : 064-745-1695~6



지난달 30일 교훈탑 앞 잔디광장에서 생각대로 대동제 프로그램 중 하나인 아라카플최경전이 진행되고 있다.

대동제, 연예인 아닌 학생이 주인돼야

참여저조와 궂은 날씨로 일부 행사 취소

아라대동제가 제41대 총학생회 '생각대로' 주최로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학내 곳곳에서 열렸다. 첫째 날인 29일에는 무대 위에서 학생들의 끼를 발산하는 돌+1 콘테스트, 숨겨둔 가장력을 자랑하는 제라진가요제 등이 계획됐으나 참여 저조로 돌+1 콘테스트는 취소돼 즉석 이벤트와 댄스팀 공연 시간 연장으로 대신했다. 둘째 날 역시 아라 컵 최강전, 아라 기인열전 등 학생 참여 위주의 프로그램이 준비됐지만 아라

기인열전은 기상 악화로 취소됐다. 그럼에도 29일 제라진가요제와 저녁 시간의 가수 공연에서는 비교적 많은 학생들이 자리를 지켰다. 한편, 이번 대동제가 학내 구성원과 도민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장이 되지 못하고 참여가 저조해 아쉬움을 남겼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오경남(건축공학 4) 총학생회장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 준비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기

울였으나 더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해 아쉽다"며 "대동제 내내 계속된 악천후와 더불어 우리들 스스로가 무대에 나와 축제를 즐기는 공연 문화가 아직 덜 형성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교훈탑 잔디밭 내부에 천막과 무대가 설치되고 차량이 들어갈 자리가 크게 훼손됐다. 잔디 복구 작업을 위한 비용으로는 49만 5000원이 소요됐다. 고훈희 기자

캠퍼스안 분실물 찾기 '별파기'

관리업무 체계 일원화해야

분실물 관리실태 낙제점

학내에서 발생하는 분실 사고와 습득 물건에 대한 관리체계가 여전히 구축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07년 당시 학내에서 발생한 분실, 습득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분실물 관리센터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총무과에서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 현재 백두관 식당 입구에 설치된 분실, 습득 게시판이 설치되고, 학교홈페이지 온라인 생활게시판에 '분실물/습득물' 코너가 마련돼

있지만 실질적인 문제방지·관리에는 부족한 상태다. 박슬기(관광경영 1)학생은 "분실게시판에 물건을 찾은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지만 자신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무심코 지나치게 된다"며 "분실, 습득 물건을 보관하고 찾을 수 있는 장소가 학내에 좀 더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습득한 물건의 주인을 찾지 못하면 물건을 계속 소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에 물건을 분실 하더라도 습득한 사람이 나타

나길 기다릴 수밖에 없어 대학 구성원들은 보관할 장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경북대는 습득한 분실물을 놓아두는 선반을 설치, 분실·습득 사고를 방지하고 있다. 인상적인 것은 선반 주위에 분실물을 찾은다는 메모뿐만 아니라 자신의 물건을 찾아준 사람에게 고맙다는 메모도 있어 학내 분위기를 훈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총무과 관계자는 "당시 관계자가 누구였는지 확인도 못할 뿐더러 분실물관리센터의 필요성은 느끼나 구체적 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도연 기자

제주대 뉴스 클리핑

모의토익대회 시상

외국어교육원(원장 김선희 영어영문학과 교수)이 주최한 2009년도 제2차 모의토익 경시대회에서 오은희(의학과 4)씨가 최우수상을, 오혜련(초등교육 2)씨가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지난달 25일 실시한 모의토익 대회 상금은 최우수상 20만원, 우수상 15만원, 장려상 10만원, 노력상은 5만원이다. △최우수상=의학과4 오은희 △우수상=초등교육2 오혜련 △장려상=영어교육과4 김수정, 수의학과3 장석원 △노력상=관광개발3 김상걸, 수의학과2 김상걸, 영어영문2 정희영, 행정학과4 강기경, 초등교육1 이경아.

고교 영어골든벨 시상

제4회 전도 고등학교 영어골든벨 대회 시상식이 지난 1일 사범대학 교수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고등학생들의 영어실력과 일반 상식을 측정하고 영어에 대한 관심을 더욱 불러일으키기 위해 개최됐다. △금상=박이은(서귀고 1) △은상=송미경(서귀고 1), 임태경(대기고 2), △동상=임은진(서귀고 1), 박세윤(서귀고 2) 강용희(제주고 2) △장려상=정한별(제주고 1), 양병현(오현고 2), 윤상현(남녕고 2), 양석조(남녕고 2) 등 총 11명의 학생이 수상했다.

전통희씨 등 국제논문 실려

전봉희(의학과 4), 오은희(의학과 4)학생의 논문이 SCIE(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 확장판)급 논문을 실는 학술지인 Psychiatry investigation 2009년 9월호에 실렸다. 전통희 학생은 '대한민국에 1년 이상 정착 생활을 한 새터민의 우울증상 유행률과 관련 요인'이라는 논문을, 오은희 학생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노인들에서 제주의 전통적 거주형태인 안락거리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게재했다.

미래 교사 20명 해외서 교생실습

겨울방학 동안 캐나다 학교서

교직과정 이수대상자 20여명이 교생실습을 국내가 아닌 해외 초·중·고교에서 하게 된다. 학생처(처장 양진진 교수)에 따르면 이번 겨울방학 기간 동안 사범대학, 교육대학, 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캐나다의 노바스코티아주 7개의 교육청 관내 공립 초중학교에서 8주 과정으로 해외 교생실습을 실시한다. 국

립대학이 해외에서 교생 실습을 위한 교환학생을 파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외국에서도 드문 경우다. 제주대는 이를 위해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의 학과에서 각 1명씩, 경상대학,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에서 각 1명씩 추천받아 20명을 선 발했으며, 이들의 전공은 사범대학 7명, 교육대학 10명, 일반학과

교직과정 3명으로 다양하다. 이들은 지난 14일부터 내달 27일까지 ELI(영어집중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사전 영어교육을 받으며, 해외 실습을 위해 왕복항공료와 8주 동안의 교육실습 및 체재비, ELI 수업료를 지원받는다. 학생처는 교생실습을 위해 캐나다의 노바스코티아주 7개의 교육청과 해외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매년 파견 학생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강보배 기자

홍수지방 등 최우수 전도 문학백일장

국어교육과(학과장 김태근)가 제45회 전도 중·고등학교 문학백일장 결과와 수상자를 발표했다. 이번 문학백일장은 지난달 11일 훈민정음 반포를 기념해 한글의 우수성을 되새기고, 글짓기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발굴·육성하는데 의의가 있다. 백일장에는 중학교 19개교 206명, 고등학교 17개교 358명 등 총 36개교 564명이 참여했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지도교사상 고등부 강철(신성여고)교사, 중등부 고애옥(제주제일중)교사

△고등부 최우수 홍수지(운문, 신성여고 2), 문한결(산문, 남주고 2) 우수 4명(운문 2명, 산문 2명), 각각 6명(운문 3명, 산문 3명), 입선 6명(운문 3명, 산문 3명) △중등부 최우수 김수범(운문, 제주제일중 2), 강승주(산문, 중문중 3) 우수 4명(운문 2명, 산문 2명), 각각 6명(운문 3명, 산문 3명), 입선 6명(운문 3명, 산문 3명) 강보배 기자

강의 우수한 교수 포상

종무식때 시상

제주대는 '2009학년도 우수교육상(Best Teacher Award)' 수상자를 선정, 포상하기로 했다. 추천 대상은 5년 이상 전임교원으로서 최근 3년간 학기당 학부과목을 6학점 이상 강의하면 된다. 추천은 추천서와 함께 세부심사기준에 준하는 업적 증빙서류를 11월 6일까지 소속 학과나 교수지원

과로 제출하면 된다. 추천은 소속 대학(원)장 혹은 전임교원 3명 이상의 연대 서명을 통해 할 수 있으며, 학생 30인 이상의 연대 서명을 통해서도 추천이 된다. 시상은 12월 31일 종무식 행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상금 250만원과 함께 교수업적평가서 가산점을 받는다. 고훈희 기자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협약

6개 국립대 공동 참여

제주대는 지난달 29일 여수시 및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와 '2012여수세계박람회(이하 박람회)'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전남 여수시 오동도 앞 박람회 홍보관에서 이뤄진 이번 협약은 제주대를 비롯해 경상대, 목포해양대, 부경대, 전남대, 한국해양대 등 남해안권 6개 국립대학이 참여했다. 고훈희 기자

이번 협약을 통해 각 대학들은 세계박람회 지원단을 구성하고 여수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와 더불어 각종 학술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관광, 해양, 환경 등 박람회 관련 분야의 학술자문을 맡기로 했다. 또 박람회 기간 중 교직원 및 대학생 자원봉사단을 꾸려 지원할 계획이다. 고훈희 기자

아라 我羅

다들 어디로 가셨소?

○... 화장실에 뭉개구름

각 건물 화장실마다 담배연기가 뭉개뭉개 피어올라 화재현장 같아 착각할 정도라는데. 급연구역인 화장실에서 이용자들이 피워대는 담배로 함께 화장실을 이용하는 비흡연자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 이런 상황임에도 비흡연자 학생들은 큰일을 치르는 흡연자들에게 항의하거나 양해를 구하기도 어려워 담배연기를 맡을 때마다 난감하다는 표정을 짓기 일쑤. '금연'이라는 글을 못 읽는 것인지, 알면서도 무시하고 흡연을 하는 것인지, 양심에 부끄럼이 없소.

○...귀 좀 편안하게 살시다!

9월 들어 귀마개가 필요하며 호소하는 이들이 많았는데, 대동제나 단과대 축제 등의 행사에서 스피커로 음악을 켜면 켜면 귀마개 수업 받는 구성원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 특히 학생회관 이웃사촌인 법정대 교수와 학생들은 괴롭다

못해 이젠 포기할 정도라니. 모두가 즐기자고 준비한 축제지만 몇몇 학내 구성원들은 시종일관 소음에 시달려야 해서 전혀 축제가 즐겁지 않았다는 후문. 대학의 낭만을 즐기자는 취지는 좋지만 서로가 즐기는 축제를 위해 상대의 귀를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 어디로 가셨소?

자리비운 교수와 직원들을 찾아 우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고 하오. 빈 연구실 앞 한 학생이 질문하러 만나질 넘게 기다리다 훌쩍. 또 한 컨디션 대학구성원들이 민원 처리 못해 발만동동하다 훌쩍. 알고 본 즉, 특하면 일부 교수와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경조사나 자기취미 때문에 자리비우기 일쑤. 교수와 직원 모두 국립대학의 공무원이시라면 그 역할이 있을 것인데, 자유로운 분위기도 좋으나 업무시간, 교육 및 상담시

간 등을 너무 간과하고 훌쩍들하시는 건 아닌지 궁금하오.

○...취재 잘하겠습니다. 꾸벅!

지난 9월 30일자 본지에 '제주대 SCI급 논문 거점국립대중 최하위'라는 보도의 본질은 교수님들이 연구에 더욱 매진해달라는 것이었으나, 단순히 논문수로 거점대학들을 비교 보도하는 바람에 우리대학이 전국 최하위로 내몰려진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

우리대학은 거점국립대학 가운데 학교 규모나 교수 수가 가장 적은데도 단순히 논문발표 횟수로 보도한데다, 서울대는 교수만 2천명에 육박하고 있어 교수 1인당 평균 발표건수도 함께 보도해야 공정하다는 지적. 본 기사가 대학의 명예와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데 대해 거듭 사과드리며 차후 학교 문제를 다룸에 있어 공정성·객관성 있는 보도를 할 것을 다다한번 다짐하오.

제29회 백록학술상 현상 공모

언론출판센터에서 제주대신문 창간 55주년을 맞이하여 제29회 백록학술상을 다음과 같이 현상 공모하고자 합니다

1.행 사 명 : 제29회 백록학술상

2.응모자격 : 제주대학교 재학생·대학원 박사과정은 제외)

3.분 야 : 일반논문 A4용지 10매~30매 내외(인문, 사회, 자연과학, 공학분야: 이미 발표된 논문이나 학위논문 제외)로 작성하고, 논문출력물과 논문파일(Word)로 동시 제출. 제출된 원고는 반환되지 않음.

4.시 상 : 학부생/대학원생

(당선작 각 1편 : 총장상 및 상금 50만원, 각각 2편 : 총장상 및 상금 30만원)

*수상인원은 논문 수준에 따라 변동 가능

5.심사 및 시상 : 심사위원회에서 추후 결정

6.접수마감 : 2009년 12월 7일(월) 18:00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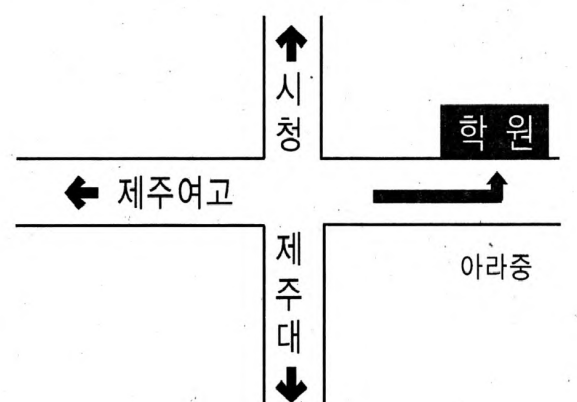
7.당선작발표 : 2010년 신년호

운 전 면 허

제주대학교 발전 후원 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 매주 운전면허 기능시험 자체 실시
- 셔틀버스 운행: 제주대 ↔ 학원(08:30~17:00) 매시 30분 제주대 정문앞 출발
- 주말교육 가능 ○ 필기시험 교재 배부



제주시 아라2동 1320 (제주여고 입구 동쪽)
전화: 755-9900

제주여고 입구 건너편(다리) ↔ 학원 셔틀버스 운행

■ 우리대학 장학제도 알고 갑시다

정보력이 능력, 다양한 장학금을 노려라

복지·3형제·봉사학생·다문화가정... 톡톡튀는 이색 장학금 눈길

학생들이 장학금과 관련한 관심과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제주대신문에서는 대학의 장학금제도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교내 장학금 취지 및 재정 규모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은 △장학금의 포상적·복지적 기능의 병행 구현 △가계곤란 학생과 장애학생 등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면학분위기 조성 및 우수인재 양성에 중점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기본방침으로 한다.

재원은 입학금과 수업료(일반회계) 총 금액에서 30%이내의 금액과 기성회비 세입액의 10.5%의 금액을 합쳐 마련된다.

또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혁신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되면서 지원받은 예산 41억 2900만 원 중 13억 6000만 원(32.9%)를 장학재원으로 활용해 2학기 중 저소득층 388명을 비롯해 장애학생 40명, 성적우수자 388명, 외국어우수자 45명 등 총 861명에게 장학금을 확대 지급할 예정이다.

▲교내 장학금

교내 장학금에는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위해 제공되는 '성적우수 장학금'이 있다. 이 장학금은 대학별 등록예정인원 수에 비례하여 B급, C급 장학금을 제공하고 학과·학년별 1명 이상에게 A급 장학금을 제공한다.

사범고시,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등 국가고시 합격자에게 지급되는 '국가고시 합격자 장학금'이 있다. 이 장학금은 1차 합격자에게 1년 이내 등록금 면제, 2차 합격자에게 졸업학기까지 등록금이 면제된다.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자녀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유공자자녀 장학금'이 있다. 이 장학금은 대상자에게 8개 학기동안 A급 장학금을 지급한다.

국제규모나 전국규모 경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학생들을 위한 '체육·예술·예술크기대회 입상자 장학금'이 있다. 이 장학금 대회 규모와 입상성적에 따라 A급·B급 장학금이 지급된다.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외국인 학생 장학금'도 있다. 이 장학금은 조선족에게 A급 장학금을 제공하고 이외 유학생에게는 C급 장학금을 제공한다.

경제적 사정이 어렵거나 자립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장학생 장학금'이 있다. 이 장학금은 사회복지시설 퇴소·입소자에게는 A급 장학금,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 학생에게는 C급 장학금을 제공한다.

형제자매가 3인 이상 재학 할 경우 지

학생들의 봉사정신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우수봉사학생 장학금'이 있다. 이 장학금은 봉사학생을 관리하는 부서장의 추천으로 학기별 2명 정도를 선발하여 A급 장학금을 지급한다.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다문화가정을

장학금과 지방자치단체 장학금, 각종 장학재단·기업 장학금 3개로 나뉜다.

국가장학생에는 미래로 장학금, 인문계열 장학금, 이공계장학금, 지역대학우수장학금, 이공대학원연구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이 있다.

지방자치단체 장학금에는 제주도 인재육성장학금, 제주도 청소년 육성기금 장학금이 있다.

각종 장학재단, 기업 장학금에는 제주대학교 총동창회장학재단, 제주장학재단, 고양부삼성사재단, 두울장학재단, 수협제주도지회, 엘트엘민조장학재단을 비롯한 다양한 재단과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교외 장학금은 수혜 대상자와 장학금액 등이 다양하고 선발 시 각각 다르다.

또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인해 선발 시 이점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 외부 장학금에 대한 관심과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

관련정보는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제주대 소식'을 통해 공지가 되고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학생복지과(754-2051)로 하면 된다.

▲기타 장학금

이외에도 산학협력단 장학금으로 전력IT 인력양성사업, BK21사업,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인재양성사업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전력IT 인력양성사업 장학금은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BK21사업은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학생들에게 지급된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은 물산업 인재양성 장학금과 관광레저 인재양성 장학금으로 나뉘어져 해당 사업에 지원한 학생들에게 주어진다.

또 국제교류센터 장학금인 김영미로 공원장학금은 조지메이슨 대학에 교류수학생과 해외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러한 정보는 약간의 관심만 기울여도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생들은 장학금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학생들이 장학금 정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자신에 맞는 장학금을 찾아 도전해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강보배 기자



일러스트 = 허승 특별기자

급되는 '3형제장학금'이 있다. 이 장학금은 3인 이상 재학생중 B급 장학생 1명, C급 장학생 1명에게 주어진다.

장애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학생 장학금'이 있다. 이 장학금은 장애등급별도 기준을 통해 A~C급 장학금을 제공한다.

포용하기 위해 마련된 '다문화가정 학생 장학금'이 있다. 이 장학금은 다문화가정 학생(본인, 배우자, 자녀)에게 A급과 C급 장학금을 지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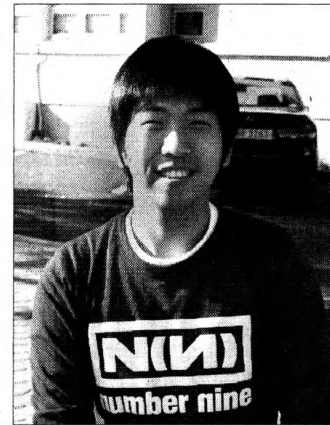
▲교외 장학금

교외 장학금은 우리 대학이 아닌 국가

■ 인터뷰- 미 조지메이슨대학 1기 교환학생

“장학금에 해외연수 일석이조”

한발 앞선 정보력과 준비가 관건



오승환(영어영문 4)

“장학금 탈 기회는 많은데 학생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대학에 마련된 장학금 프로그램들은 많지만 학생들이 정보를 잘 몰라 아쉽다는 오승환(영어영문 4)학생의 말이다.

학교에서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미국유학을 다녀왔다는 오 학생은 학생들이 모르는 교내 장학금 혜택이 많으며, 각종 정보를 잘 취득하면 장학혜택의 기회는 많다고 주장했다.

오 학생은 국제교류센터에서 마련된 교환학생프로그램으로 미 조지메이슨대학을 다녀왔다.

지난 2007년 학술교류를 위한 협정체결을 맺고 작년 8월 가을 학기에 맞춰 1기 교류수학생으로 파견됐다. 일본, 중국 등 해외 대학에 교환학생을 파견한 적은 있지만 대학 발전기금을 통해 현 미국 대학에 파견된 사례는 처음이었다.

이번 교류수학에서 오 학생은 대학에서 기성회계, 김영미로기금을 통해 1000만원을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오 학생은 “학생들은 보통 휴학을 하고 개인비용을 들어 유학생생활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인해, 장학금도 받고 덕분에 가고 싶었던 외국유학을 다녀올 수 있어 너무 좋았다”고 말했다.

미 조지메이슨대와 맺은 교류수학은 성적이 일일이 매겨지는 것은 아니지만 통과(pass) 또는 실패(fail)의 방식으로 정식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교류수학에는 토플(140점), 학부성적(30점), 면접(30점) 등으로 3명이 선발돼, 작년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0개월간 미국 유학을 다녀올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됐다.

학교 온라인홈페이지를 돌아보던 중 게시판에 교류수학 1기생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지원을 하게 됐다는 오 학생은 “외교 쪽에 관심이 있어 외국에 나가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마침 장학금을 받고 학기도 인정되는 프로그램이 학교에 마련돼 있었더라”며 “무엇보다 제주대학생 대표로 나가게 돼 학교를 빛내고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컸다”고 말했다.

교류수학을 준비하면서 학내 장학프로그램은 많이 마련돼 있지만 학생들의 참여는 저조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는 오 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미리 정보를 수집해 준비하고 참여해보는 것이 좋다”며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해당 직원에게 메일을 보내고, 꼭 참여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학내 장학금은 복수장학금이 많아 양극화 현상이 커져 받는 사람만 줄곧 받는다”며 “성적우수장학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학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으니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경제적 부담도 덜고 다양한 혜택을 받으며 학교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 학생은 학교홈페이지를 보고 고려대가 주최한 ‘2009 제2회 한미학생회의’도 신청해 장학금을 받고 해외연수를 다녀오기도 했다.

김도연 기자

「함께 개선하는 교육환경」 시리즈 - ② 수의과대학

‘콩나물 실습실’ 심각... 학생 많고 공간 좁아

교수연구실도 뿔뿔이지만 신축 건물은 요원

‘함께 개선하는 대학시설’ 시리즈 두 번째 순서는 수의과대학이다. 수의과대의 수업환경 문제는 10년이 넘도록 계속 제기돼 왔다. 수의과대는 지난 89년 당시 농과대학(현 생명자원과학대학, 이하 생명대) 소속의 수의학과로 처음 개설됐다. 그 후 98년도부터 6년제 교육과정으로 개편되면서 학생 및 교수들 사이에서 단과대학으로서 독립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잇따라 제기됐다. 그 결과 지난 2008년 단과대학으로 분리되는 성과를 얻어냈다. 그러나 학생들 사이에서는 ‘수업권을 제대로 보장받을 만큼의 수업환경 개선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일 뿐’이라는 원성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수의과대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본다.

(편집자주)

수의과대만의 독립된 건물 필요
현재 수의과대는 구성원을 전부 수용할 독립 건물이 없다. 때문에 20명의 교수들은 생명대, 동물병원, 본관 등에서 연구실을 사용한다. 학생들 역시 생명대와 동물병원 옆 조립식 가건물(이하 가건물)로 뿔뿔이 흩어져 수업을 받고 있다.

1학년은 주로 생명대에서 수업을 받고 2·3·4학년은 가건물에서 수업을 받는다. 이에 선후배간 친분을 다지거나 학문적인 교류를 갖는 데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또한 강의실 및 실습실이 크게 부족해 수업을 원활히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의과대의 정식 강의실은 생명대에 1개, 가건물에 3개가 전부이며 실습실은 가건물 내에 단 2개만 존재한다. 수의학과 특성상 수업 과정에서 실험·실습을 하는 경우가 많다. 단 2개의 실습실을 가지고 전 학년의 실습을 감당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어쩔 수 없이 비좁은 교수 개인 실험실이나 동물병원의 진료용 공간에서 실습을 하거나 일반 강의실에 기본 실습 기자재를 모두 옮겨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손원근 수의과과장은 “심각할 때는 학생들이 콩나물처럼 붙어서 수업을 받고 교수는 학생 사이를 지나가지도 못한다”며 “팀 프로젝트 등 새로운 교수법을 적

용하기에도 큰 제약이 따른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2·3·4학년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조립식 가건물은 방을 몇 칸이든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데 있어 불편을 느끼고 있다. 가건물 바로 옆 동물사육장에서 실습견을 비롯한 동물들이 내는 소음과 배설물의 악취가 수업 받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다.

수업 중에 비라도 내리는 날이면 더 큰 낭패다. 수의학과와 한 학생은 “수업 도중 가건물 지붕위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워낙 커서 수업에 집중하기가 힘들었던 적이 있다”고 하소연 했다.

■완공 안 된 건물들 많아 당분간 건물 신축은 힘들어...

수업 공간 부족으로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마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학교 측에서는 당분간 해결이 힘들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영화 시설과장은 “수의과대 문제를 1순위 사업으로 생각하며 매년 공시, 비공식적으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재 공사 중인 인문대학 2호관, 의학·법학전문대학 등 완공되지 않

은 건물이 많다”며 “남은 공사비가 정부 지원 시설비 3년 평균 예산의 600%에 이르러 중앙부처에서 새로운 사업을 검토해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현재 시설 중인 건물도 필요한 공사비가 많아 수의과대 건물 신축이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뜻이다. 이어 그는 “학생들이 가건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지만 새 건물을 지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수밖에 없다”며 “벌여놓은 사업들을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말했다.

최성영 수의학과 학생회장은 “수의과대의 열악한 수업환경이 쉽게 개선되기 힘든 문제란 것은 알고 있다”며 문제 해결이 당장은 힘들더라도 학생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학교 측과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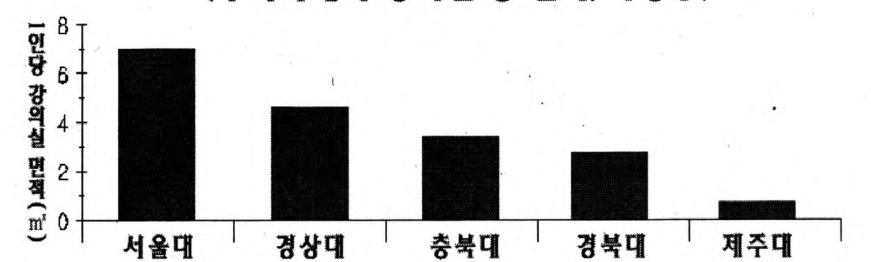
수의과대학 내에서는 여전히 ‘기본적인 수업 환경만큼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지만 학교 측의 답변은 “당분간 건물 신축이 어렵다”는 것이 전부다. 수업 환경이 학생들의 수업권과 대학 이미지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보다 문제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고홍희 기자



수의학과 학생들이 교수 개인 실험실에서 미생물 실습 수업을 받고 있다. 공간이 비좁아 실습 내용을 제대로 보기도 힘든 상황이다.

대학별 수의과대의 1인당 강의실 면적 (수의과대학 강의실 총 면적/학생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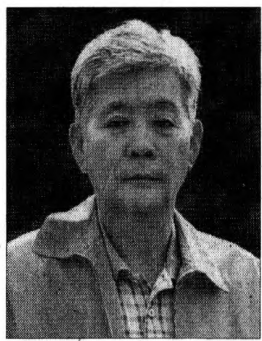
※수의과대학 건물추진위원회 제공(2007년 자료)

대학별로 수의과대의 1인당 차지하는 강의실 면적이다. 다른 대학과 비교해 봤을 때 제주대 수의과대학의 1인당 강의실 면적은 매우 좁다.

원예복지를 누리는 제주인의 삶

제주도 발전 핵심은 '제주의 자연'

꽃·나무 기르기 '원예요법'... 스트레스 털고 뇌기능 활성화



소인섭 생물산업학부 교수

인류의 역사가 약 50만 년이라면 그 수억 년 전에 벌써 세상을 뒤덮고 있었던 식물들은 이 세상 모든 생명체의 중심 노릇을 하고 있었고, 사람에게도 그간 엄청난 혜택을 안겨 주었다.

사람은 식물이 주역으로 형성하는 자연 속에서 하늘과 땅 그리고 다른 생물들과의 균형적인 유대관계를 가지며 생존해왔고 이미 오래된 역사 속에서 사람 몸에서 자연스럽게 유전인자와 하여 살도록 해박 받고 사는 것이 당연지사이고 조물주의 뜻인 마냥 여기저기 산다.

그러나 사람은 지난 100년 전부터 갑자기 과학이란 힘으로 맹렬한 발전을 이뤄냈다. 수백만 년 가운데 100년, 즉 100년은 수백만 년에 비하면 극히 미약한 시간이나 다름이 없다. 마찬가지로 지구상에서 인간의 존재도 식물에 비하면 그 생존과 생활의 역사가 없는 것이나 다름 없을 정도로 지구는 식물 위주로 존재하였고 그 속에 있는 사람은 극히 미미한 존재였다.

그런데 자연의 큰 넓이를 차지하는 지구상의 숲이 사람들에게 의해서 지난 50년간에 50%가 이미 사라졌고 인간이 발전시킨다는 산업을 통해서 배출되는 탄산가스의 증가로 지구의 온난화와 기상변이가 속출하고 있으며 심상치 아니한 현대병의 발생과 그 확대가 인류의 존재를 점차 위협하고 있다. 사람에게 의한 자연의 훼손으로 인해 사람이 좌우를 슬기롭게 살펴, 대처하는 100년 또는 미래에 보다 높은 Wellbeing을 누리기 위해 자연사랑과 환경보호에 각별한 자세와 책임감을 가져야 할 때다.

원예는 근본적으로 채소, 과수와 화

훼 조경식물을 비교적 집약적인 기술과 면적에서 재배·관리하여 이를 유통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자연에서 야생하는 식물이라 하더라도 어느날 그것을 사람이 필요하게 되어 재배하고 이용한다면 그것이 바로 원예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기술 집약적이면서 고소득이 보장되는 작목을 고품질로 생산하는 농업이 원예이다.

원예식물의 재배는 원하는 작목이 주어진 환경에 맞도록 재배·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식물은 유전적인 특성과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기 위해서는 식물이 원하는 환경을 조성시켜 주기 위해서 시설 (비닐하우스 같은 것)을 하고 냉풍이나 온풍 그리고 자동관수 등을 하여 상당한 생산비를 들여야 하고 또 고급화한 재배생산기술이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는 고소득이 보장되는 특수농업이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원예가 사람의 생활속에서 자연을 잃고 사는 것을 회복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밝혀져 원예의 또 다른 중요성에 주목하게 됐다.

자연에 잃게 되면 사람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거나 치유하는 요법으로써의 원예 가치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각종 장애인, 정신장애, 순환기계통, 알콜계 질환을 위시하여 요즈음 인류의 존재를 위협하는 각종 바이러스병(에이즈, 조류독감 등)과 범죄의 증가 등은 근래에 나타나는 자연 상실과 관련이 있다.

대체 의학적 요법으로써 음악, 미술 같은 요법이나 재미를 느끼게 하는 오락이나 좋은 향기를 맡게 하는 아로마 요법도 널리 알려져 있으며 그것과 더불어 원예활동에서는 다른 요법에 비해서 또 다른 특수성이 있다.

원예는 사람의 오감을 작동시켜 바로 자연을 맛보며 스스로 느끼고 즐기는 것만으로도 다른 요법과 크게 다르다. 이것은 원예요법(원예치료)이라고 한다.

원예는 활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상이 생명체이고 또 원예 생산물을 섭취함으로써 유명하거나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근래의 질병을 예방하고 또 치유하는 효과가 있음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이는 말하자면 자연을 잃어 앓고 있는 몸에 자연을 불어 넣어주고 자연스레 신체를 소생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원예는 사람이 어릴 때

부터 몸에 익숙한 활동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학습기회와 자연놀이터가 되도록 하고 나아가서 인간 정서 교육의 큰 효과를 내는 것을 기대한다. 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자연이 준 인간성과 지혜가 사회의 복지를 추구하고 가정과 국가발전의 초석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임을 예감하게 된다.

제주도를 고향으로 둔 제주인들은 원예에 의한 경제활동, 사회활동 그리고 문화활동을 중시해야 한다. 완전한 인위적인 손길로 형성되고 세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신가들의 센토사 공원과 비교해 봤을 때 제주도는 천혜의 조건에 더욱 차원 높은 관광지로서의 가치와 발전을 기대해 본다.

20세기는 사람이 자연을 지배하고 과학이 발전하므로 지금의 생활수준을 누리고 살게 되었지만 21세기는 거꾸로 자연이 사람을 가두고 보존해야만 한다. 자연교육의 원천은 생명이 있는 자연의 주역인 식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지금 인구의 대부분이 자연이 파괴된 복잡한 도시에서 살고 있다. 도시에서 살며 항상 접하는 것은 콘크리트와 기계들이다. 자연과 접할 수 있는 환경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 사이에 사람 특히 미래를 책임질 아동들이 자라고 있다. 자연은 아동에게 특히 정서와 인간성, 사회성, 과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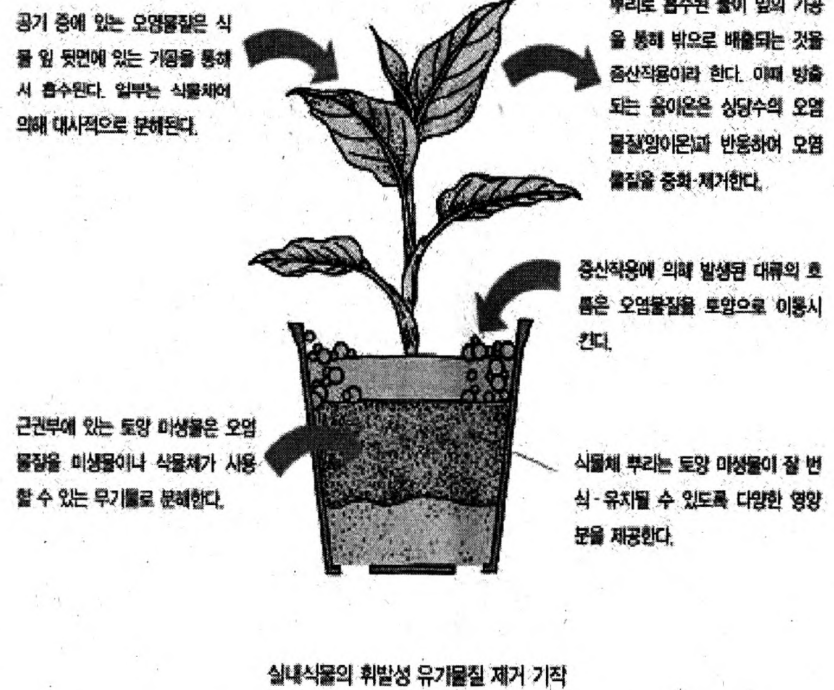
을 심어주고 쉽게 창조적 지혜를 갖게 한다.

산과 바다가 있는 곳이면 더 바랄 것이 없지만 가정집의 방안부터 시작해서 학교 교실내와 작은 정원들, 이 모두가 정원이고 소자연을 꾸밀 수 있는 공간이다.

제주도의 주민들은 자연을 배우고 느끼기에 천혜의 환경이기는 하지만 관광시설로 어린이가 특히 좋아하고 놀이나 배움의 터가 될 시설의 확충이 더 필요할 것 같다. 아동들이 직접 자연을 경험해 볼 수 있는 흥미진진한 유희시설과 공간은 아동들의 미래를 좌우한다. 꼭 미국의 디즈니랜드나 우리나라의 에버랜드가 아니더라도 자연을 파고들고 만져보며 아동들이 자연에 감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삶에 대한 무한한 희망과 환희를 갖게 함이 매우 중요하다.

현대사회는 21세기의 기계디지털문명의 영향으로 생활의 안이함과 허식만연한 환경으로부터 건강을 해치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질병과 재난을 초래한다.

제주도는 태고 때부터의 자연을 철저히 보존하고 자연의 소중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자연이 바로 경제요, 사람의 Wellbeing이다. 천혜의 환경 속에서 전개되는 원예활동은 제주도의 매력



실내 식물이 휘발성 유기물질(VOC)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그 기작을 나타낸 그림이다.

한권의 책

비전공자를 위한 경제학서

존 갈브레이스(John K. Galbraith)라는 저명한 경제학자는 “경제학자는 두 그룹이 있는데 한 그룹은 무엇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다른 그룹은 무엇을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다. 경제학이 경제학자에게조차 그 만큼 어렵다는 의미이니 경제학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경제학이 얼마나 따분하고 어려운 것인지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학에 입문하는 학생들에게 알기 쉬운 책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야기 경제학교실’(이웅 역, 한울, 1994)을 추천하는데 이 책은 모리스 리바이(Maurice D. Levi) 교수가 1985년에 쓴 경제학적 사고-How Economic Principle Can Contribute to Clear Thinking을 번역한 책이다.

경제학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소비, 생산, 교환 활동을 다루는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학을 자신과는 관계없는 어렵고 따분한 학문으로 생각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대부분의 경제학 교과서가 수학, 도형, 모형 등 복잡한 기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복잡한 기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모든 내용을 일상적인 언어로 설명하고 있어 복잡함과 따분함이 대폭 경감된다.

또한 대부분의 경제학 교과서는 경제학 개념 및 이론을 먼저 설명한 후 사례를 드는 반면에 이 책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부딪히는 다양한 예를 먼저 설명한 후 경제학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개념화시키는지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의 또 다른 장점 중의 하나는 일반인들이 경제학적으로 사고하지 않고 얻은 결론과 경제전문가가 경제학적으로 사고하여 얻은 결론을 비교함으로써 경제학의 유용성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경제학의 한계에 대해서도 설명함으로써 경제학이 만능이 아님을 상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 책은 크게 4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1부에서는 경제학의 기본 논리에 대해 설명하면서 주관적



「이야기 경제학교실」

모리스 리바이 지음/이웅 옮김

사고, 논리적 사고를 다루고 있고, 2부에서는 미시경제학의 논리에 대해 설명하면서 수요에 대한 사고, 미래에 대한 사고, 효율적 사고, 생산적 사고, 균형잡힌 사고, 시험적 사고, 기회를 고려하는 사고, 이기적 사고 등을 다루고 있다. 한편 3부에서는 거시경제학의 논리에 대해 설명하면서 명목한 사고, 순환논법, 빠른 사고, 체계적 사고, 합리적 사고, 효과적 사고 등을 다루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4부에서는 국제경제학의 논리인 열린 사고와 경제학적 사고의 한계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경제학의 인기가 부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많은 학생들이 경제학을 안정된 직장고 높은 보수를 얻기 위한 발판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과 경제학의 법칙들이 에이즈 문제, 비만, 테러 등 세상의 다양한 이슈들에 적용되는데 사람들이 매료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제학을 공부하는 것은 조리법(recipe)을 배우는 것과 같다. 맛 있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 집에 요리책 한두 권 비치해 놓고 조리법을 배우듯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들을 경제학적인 사고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책을 비치해 놓고 참고하면 매우 유용할 것이다.

강기춘 경제학과 교수

세계인명사전 등재 교수 인터뷰 ① 양길현 윤리교육과 교수

민주주의 학자가 말하는 ‘불가지론의 세계’

“신문 정독 체계적인 사고 키워 학생에게 권장”

대학은 국가와 인류사회에 필요한 학술상의 이론을 연구하는데 큰 목적을 둔다. 교수들은 새로운 시대와 사회를 이끌어갈 기반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대신문은 자신만의 분야에 묵묵히 연구 활동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교수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 연재를 준비했다. (편집자주)

양길현(윤리교육과) 교수가 민주주의를 공부하게 된 계기는 대학시절에 있다. 양교수의 대학시절은 고 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의 집권시기였다. 양교수는 박대통령 집권당시 대학에서 쫓겨나고 전두환때 복학했다. “권위주의 정부 때라 민주주의는 없었다”며 “내 관심은 어떻게 하면 권위주의 시대가 민주주의로 바뀔까라는 생각 뿐”이라고 회고했다. 그때부터 양교수에게 ‘민주주의’는 학업에 있어서 중심축을 형성하는 개념이었고,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박사논문과 연구에 돌입했다.

하지만 연구 도중 한국은 어느새 민주

화가 돼버려 양교수는 국내에서 해외로 눈을 돌렸다. 현재는 민주화가 되지 못한 몽고, 베트남, 미얀마, 니카라과의 민주화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

양교수는 “가난하고 못사는 나라가 어떻게 경제발전해서 잘살고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민주주의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 중”이라면서 “제주 또한 최근 평화를 중요시해 평화의섬, 주민소환 등의 연구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양교수는 자신의 대표적인 논문도 소개했다. 미얀마의 민주화, 세계평화의 섬 제주, 노무현정부의 대외정책 세 가지들 얘기했다.

논문 얘기가 나와 최근 SCI급 논문실적수가 국립거점대중 최하위라는 발표에 교수님의 의견도 물어봤다. 양교수는 자신은 한국지넬에만 글을 썼다며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에 제주대학교수가 그만큼 연구를 많이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SCI급 논문은 영어로 써야하는데 교수들은 영어실력이 떨어지는 면이 있고 연구비지원도 많이 부족한 편이다”며 “강의시수도 많은데 연구까지 많이 요구해

힘들다”고 말했다. 또한 “제주도는 육지와 다르게 강의는 많고 시간강사는 구하기 힘들어 연구시간이 많이 부족한 편이다”고 덧붙였다.

양교수는 자신의 연구분야인 민주주의를 시지프스 신화에 비교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지프스(sisyphus)는 신을 모독한 죄로 바위를 산꼭대기에 올려다 놓는 벌을 받는다. 그러나 산은 너무나 뾰족해 올려놓는 순간 다시 산 아래로 굴러 떨어진다. 시지프스는 그 돌을 산위로 올리는 행동을 죽을 때까지 반복한다.

양교수는 시지프스의 삶이 인간의 삶과 같고, 돌을 끊임없이 올리는 것은 꿈과 이상을 지속해서 이루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즉, 우리가 이상사회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처럼 민주주의가 잘되는 것도 이상이기 때문에 진정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우리는 이상을 추구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인간의 한계를 염두하면서 양보할 것 양보 해야한다”며 “민주주의

는 포기해선 안될 가치와 꿈, 이상이기 때문에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며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고 했다.

양교수는 “민주주의가 됐다 싶으면 다시 문제가 생기고, 민주주의가 안 되고 평화가 정착했다 싶으면 또 다시 싸우고 갈등이 벌어진다”며 “끊임없는 연구와 공부를 하고 있지만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길은 너무나도 어렵다”고 말했다.

자신이 가진 철학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양교수는 “내 철학은 불가지론(不可知論)”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교수직을 하며 많은 공부를 했다고 해도 누가 질문을 던지면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남들보다는 조금 더 알고는 있었지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오십보백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배우는 자세를 잊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양교수의 최근 연구는 크게 다자안보, 한아세안 협력, 주민소환 세 가지다. 안보는 자신의 나라를 지키는 것인데 다자안보는 다른나라와 협력해 안보와 평화를 지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올해 연말



캐리커처=이승남 특별기자

에 미얀마 정치와 관련한 연구서 출간도 준비하고 있다.

정치평론가가 꿈이었던 양교수는 “교수도 평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꿈을 이뤘다”며 “앞으로 자신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도움이 될 일이 있다면 기여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양교수는 “내 연구를 통해 우리사회가 다른 나라보다 발전된 민주주의로 나아가

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교수는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매일 한 시간씩 신문 읽을 것을 권했다. “가능한 다양한 이슈에 대해 한 시간씩 꾸준히 읽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또한 신문의 한쪽 논조에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다양한 보수·진보적인 기사와 논평을 동시에 읽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도연 기자

◆성폭력 피해를 근절하려면

제주사회 성폭력 근절 도민 모두가 나서야

‘심각한 사회악’ 막기 위한 강력 대책 절실

지난 10월 28일부터 있었던 제주대학교 축제에 본 상담소에서 “대학내 성문화 개선을 위한 설문”을 실시했다. 설문 내용은 대략 성폭력관련 학칙 등에 대해서, 성폭력 통념에 대해서 그리고 성폭력 피해발생 시 대처 등에 대한 질문 등으로 구성하였다. 이에 대해 254명의 학생들이 설문에 참여하였는데 그 중 “대학규정 내에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15.4%인 37명이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대학건강진센터 내에 ‘성희롱·성폭력 상담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학생은 63명(24.8%)에 불과했다. 물론 알고 있지만 이용을 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는 전무했다.

설문의 결과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본 상담소에서 실시한 설문의 목적은 얼마나 알고 있는가가 아니라 제주대학교 학생으로서, 학내에서 피해 발생 시 이러한 규칙과 기관이 있음을 알고 있다면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에 그에 대해 알려내기 위함이었다. 사실 많은 기관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뢰받고 교육을 해보면 기관 내에서 성폭력이나 성희롱 피해가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하는 기관이 대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대내에서는 끊임없이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고, 법정에서는 이와 관련한 재판들이 열리고 있고 이와 관련한 보도들이 종종 뉴스를 통해 전해진다. 본 상담소의 2008년도 상담 통계들 중심으로 봤을 때 연간 약 70명 남짓한 피해자를 만나게 된다. 한 달에 5~6명의 피해자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또한 매주 피해자가 1~2명 상담소를 찾아온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성폭력피해 신고율이 6.1%인 점을 감안한다면 상담소를 찾아오는 피해자 수는 그리 많지 않은 수인 것이다. 상담소를 통해 신고를 하기까지 많은 고민 끝에 가해자를 고소하기로 결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가해자의 해코지가 무서워 고소는커녕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혼자 참고 지나가려는 경우가 많다.

더군다나 제주도라는 지역의 특수성이 이를 더해줄지도 한다. 특히 아동 청소년인 경우 부모가 고소과정에서 대리인이 되기에 가해자가 동네사람이어서 혹은 친척이어서 오히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를 고려하다보니(동네에서 ‘얼굴 붉히기 싫어서’)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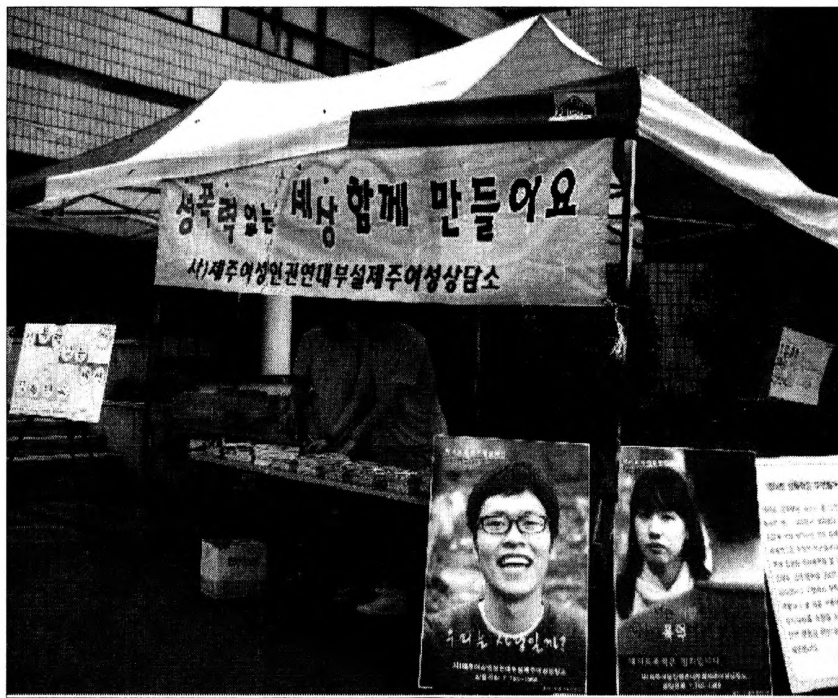
그러다 보니 피해가 커지기도 하고 오히려 피해자 가족이 가해자가 되어 있기도 한다. 이런 일들은 제주도에서만 특별한 현상은 아니다. 그러나 한 두사람 건너면 아는 관계인 제주도의 특수성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이 피해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은 과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성인 피해의 경우 아동의 경우에 비해 훨씬 더 피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성인이기 때문에 피해 당시 저항의 흔적이 있는가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법에서 요구하는 그 저항의 흔치 않는 것은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느냐에 대해 그리고 피해자가 피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어떠한 저항을 했느냐가 피해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법정에서 재판시 중요한 판결의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우리 법이 갖고 있는 한계로 외국의 경우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자신의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로 하여금 알리바이를 통해 자신이 가해자가 아님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 많은 차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항상 피해자들이 내 피해가 무엇인지 어떤 경로를 통해 피해를 입게 되었는지를 설명해야하는 방식이다. 그러니 성인인 경우 “밤늦은 시간”까지 남자와 함께 “술을 마신”것이 문제가 된다.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스스로 조심”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우리나라의 법제도에 대해 “최협의설”이라고 한다. 우리의 법체계는 그만큼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피해로 입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피해 중 자주 드러나는 피해는 스토킹이 아닐까 싶다. 같은 과 혹은 동아리 동기나 선배 배 등으로부터 입는 스토킹 피해는 그 피해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학업을 포기하는 사례들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오히려 가해자들은 떳떳하게 학교 생활을 하는 반면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을 피해 학업을 중단하고 삶의 터를 이동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이럴 때 우리나라 형법의 가해자 중심의 성평화성과 최협의라는 한계를 절감하게 된다.

최근 “조두순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하다. 2006년 용산어린이 사건을 시작으로 우리에게 어린이 성폭력 피해 내용에 대해 알려지기 시작했고, 해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특히 여자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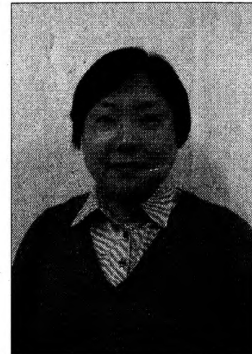
지난 2008년 총학생회 축제 당시 한라터에서 여성상담소가 성폭력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때마다 여론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확실한 대책(그 대부분은 가해자 처벌에 맞춰져 있음)을 요구하고 있으나 피해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그 피해는 지속되고 있다. 가해자 처벌에 맞춰진 것이 문제이진 않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가해자 처벌에 앞서 피해자를 바라보는 시선 또는 사건에 대해 피해자 중심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시각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일상적인 삶을 살기에는 많은 고통을 감수해야한다. 그건 아동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많은 법률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들이 모든 피해아동에게 적용되지 않을 거란 건 지금까지의 경험에서 충분히 알 수 있다. 피해자와 되지 않은 아동(예를 들어 피해 이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신체적 손상 또는 우울이나 대인기피 등 정서적인 불안정 등)들에게는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림의 떡’이 될 지 모르겠다. 이런 제도들이 모든 성폭력피해자들에게 동일 적용이 되어야한다고 본다.

얼마 전 제주에서도 너무나 어이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30대 남성이 저녁 5시 30분경 얼마와 함께 길을 가던 초중학생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고 한다. 필자가 읽은 그 기사의 말미에 기자는 경찰의 말을 빌려 이렇게 쓰고 있었다. “김씨는 경찰조사 결과 술

에 만취한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인터넷 신문 J) 이 기사는 5줄에 불과한 기사였음에도 마지막 한 줄에 의해 우리 사회가 성폭력의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여과 없이 보여주었다. 지난 주말 “음주는 양형 감형의 이유에서 제외한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술은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무엇이란 생각을 갖고 있다. 교통사고에서 음주는 더욱 가중 처벌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등 여성 폭력의 경우에는 유독 음주는 면죄부가 되어 왔다. 최근 법무부의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내년 2010년에는 형법 개정이 있다. 이에 맞춰 성폭력 관련 조항들에 대한 개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고명희
제주여성인권연대 여성상담소 소장

■ 제주대 성범죄 안전점검

‘성 상담센터’ 기능 확대해야

예방 위해 CCTV 설치 필요

최근 ‘나영이 성폭행’ 사건이 이슈화 되면서 아동성폭행을 비롯한 많은 성범죄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장소를 불문하고 예상치 못한 데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 성추행등의 성범죄에 대학도 안전하지는 못하다.

▲유형별 대학 성추행·성폭행 사례

대학은 구성원뿐만 아니라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장소다. 넓은 캠퍼스 안, 유동인구가 많은 만큼 학내에서는 외부로부터 피해를 입는 사건사고가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외부인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생, 교수와 학생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비롯해 교직원, 연인, 친구 사이에서도 문제발생 위험은 존재한다.

경북대에서는 2007년 졸업은문준비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학생이 교한이 달려들어 휘두른 흉기에 복부 등을 찔려 중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다.

또한 지난달 강원대에서는 교수가 대학원생을 성추행해 피해를 입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교수가 여대학원생과 술을 마신 뒤 잠든 학생의 신체를 만지고 일부를 촬영하려 했다는 것이다. 또 조사과정에서 피해학생이 5명으로 밝혀져 학생들에게 충격을 안겨줬다.

대학 캠퍼스 내 일상적인 문화에서도 왜곡된 성개념이 녹아있는 실정이다.

신입생 환영회에서는 여장 남자 게임, 눈을 가리고 몸을 더듬으며 상대의 몸에 집착하는 팔레지계를 찾는 게임, 남녀가 몸을 겨루는 채 술을 먹는 러브샷 등이 단골 메뉴로 등장한다. 이러한 게임을 하다 보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말과 행위가 오고가 참가자들이 불쾌함을 느끼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만연된 왜곡된 성문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시급한 실정이다.

▲제주대도 예외는 아니... 학교 측 특별한 대책 없어

제주대도 언제까지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학 측에서는 체계적인 성범죄방지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총여학생회에서는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평화활동가를 모집하고, 건강검진센터에서는 성 상담소가 마련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학생의 참여·요청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2002년에는 제주대 4명의 여학생이 연쇄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 전과 6범의 전과기록을 갖고 있는 가해자는, 늦은 시간 혼자 버스를 기다리는 여학생들에게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차에 태운 뒤 성폭행을 가했다. 이 사건이 발생한 후 학교에서는 대안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우리대학은 성교육 등과 관련한 교육들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선주(정치외교 1)학생은 “성상담센터가 마련돼 있지만 실제 피해입은 학생들이 신원을 노출하면서까지 찾아가서 상담을 할 것인가의 의문이 든다”며 “학내에서 성폭력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타 대학은 학내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부산대에서는 학내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2학기부터 ‘효원 지킴이’를 만들었다.

효원지킴이는 쾌적하고 건전한 캠퍼스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2개조가 매일 오후 11시부터 오전 5시까지 순찰을 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기숙사 및 학교 주변을 돌며 여학생의 귀가길 안전을 확보하고 고내 불법차량 단속, 생활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도 한다. 또한 부산대와 협약을 맺은 무인경비시스템 보안업체에서 지킴이들에게 호신술, 심폐소생술, 소방교육 등 이론, 실습교육을 하고 있다.

대학캠퍼스가 범죄에 쉽게 노출돼 있는 만큼 학내에서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도연 기자

영화, 세상을 만나다(2) - 1966년 <석양의 무법자>와 2008년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남은 것은 서민을 담보로 한 자본의 ‘추격전’

1966년 <석양의 무법자>가 2008년 <놈놈놈>보다 진보적인 이유

김지은 감독의 2008년 작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이하 놈놈놈>(The good, The bad, The weird)을 살펴보기에 앞서 스파게티 웨스턴 장르의 거장인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의 1966년 작 <석양의 건넌 2 - 석양의 무법자, 이하 석양의 무법자>(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1966)를 말할 필요가 있다.

김지은 감독은 <놈놈놈>이 <석양의 무법자>에서 모티브(motive)를 얻어왔으며, 거장 레오네 감독에게 바치는 오마주(hommage : 프랑스어로 존경, 경의를 뜻하는 말, 흔히 영화에서 어떤 작품의 장면을 차용함으로써 그 감독에 대한 존경의 표시를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된다)라고 밝힌 바 있다. <놈놈놈> 스토리 라인은 <석양의 무법자>과 거의 흡사하며 영화 곳곳 장면은 <석양의 무법자>에서 빌려왔다.

두 작품 모두 추격전이 핵심이다. 보물을 두고 세 남자가 광활한 벌판에서

엮히고 쉴켜 술가쁜 추격전을 벌인다. 두 작품 모두 추격전의 결과가 기다려진다. 마지막 보물의 향방이 판명되는 놈, 놈, 놈이 마주하는 삼각구도가 중요한 영화다.

영화 마지막 삼각구도만 본다면 <놈놈놈>의 명확한 패배다. 레오네 감독의 <석양의 무법자>가 40여년 전에 만들어졌음에도 스타일이나 카메라 구도, 장르적으로 <놈놈놈>보다 훨씬 짜임새있고 훌륭하다. 긴장감에서도 <놈놈놈>을 압도하며 장면이 말하는 의미도 훨씬 진보적이다.

레오네 감독은 미국 서부극 장르가 알려고 했던 미국 개척 신화를 정면으로 거부한 사람이다. 미국 서부극을 비판하며 태어난 장르가 ‘스파게티 웨스턴’이다. <석양의 무법자>에서도 레오네 감독의 시각이 잘 드러난다.

특히 영화 마지막 ‘놈놈놈’의 대결 장소는 전쟁에서 숨진 병사들이 묻힌 공동묘지다. 카메라가 세 남자의 삼각

구도를 만들때 공동묘지 십자가 묘비가 화면을 가득 채운다. 결국 세 놈이 찾고자 하는 보물은 이름 모를 수 많은 사람들 희생을 댓가임을 상징한다. 미국의 경제발전을 신화화 할수록 이유 없이 숨겨진 수 많은 이들의 죽음은 외면당하는 현실을 개탄하는 거장의 날카로운 시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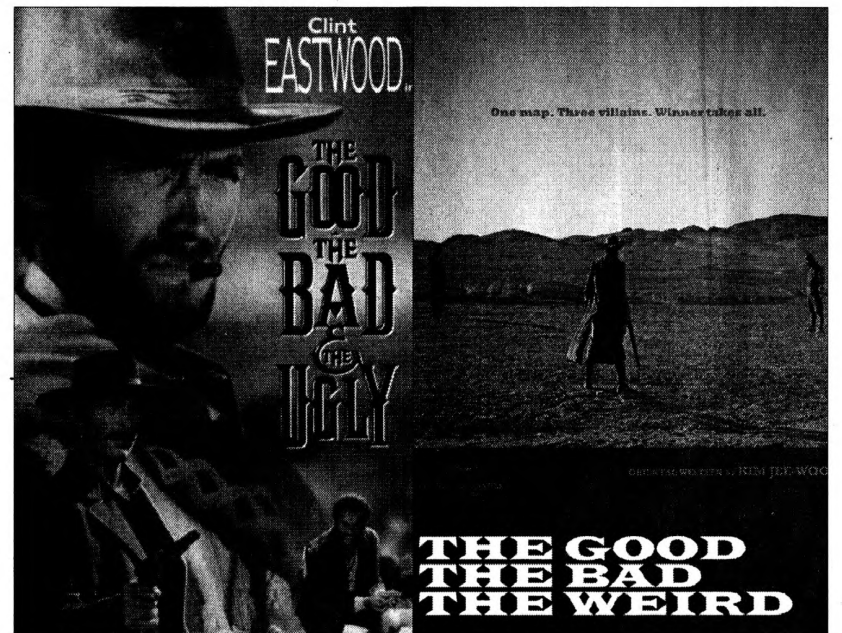
반면 김지은 감독의 <놈놈놈>은 아쉽게도 레오네 감독 만큼의 시선은 느껴지지 않는다. 레오네 감독이 창조한 명장면을 빌리고 싶은 욕심만 있었지 거장의 세상에 대한 웅변까지 담아내지 못했다.

레오네 감독은 <석양의 무법자>를 통해 관객에게 성찰을 요구한 것과 달리 <놈놈놈>은 관객에게 성찰은 뒤로하고 ‘추격전’에 참여토록 요구한다. 그것도 한국을 대표하는 정우성, 이병헌, 송강호가 참여한 추격 게임, <놈놈>이 흥행에 성공한 이유는 적극적으로 관객이 추격전에 참여했기 때문이

다. 정우성, 이병헌, 송강호 세 배우 중 자신의 취향대로 한 배우를 골라 보물을 향한 ‘추격전 게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다.

레오네 감독의 <석양의 무법자>는 미국의 현재와 미래를 근심으로 빛어낸 영화지만, <놈놈놈>은 한국의 현재와 미래를 단순화하고 ‘게임화’한 영화다. <놈놈놈>에서 관심은 누가 보물을 획득하느냐다. 한국 영화산업에서 가장 관객 자본을 끌어들이는 능력이 좋은 세 배우가 모여 자본을 누가 획득하느냐는 게임, 성찰과 비판은 사라지고 자본을 향한 집념과 판타지가 남는 게임이다. 관객 역시 자본 획득 게임에 적극 참여했다. 자본을 많이 획득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현실, 영화에서나마 현실의 근심을 회복하고 싶은 판타지, 그 판타지의 반영이 <놈놈놈>의 흥행으로 나타난 것이다.

<놈놈놈>은 멀지 않은 미래의 제주를 진단가능하게 한다. 다양한 인종과



왼쪽부터 영화 <석양의 무법자>,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의 포스터.

세력이 혼합한 <놈놈놈>의 배경인 무정부상태의 만주벌판, 제주에는 다양한 자본이 진출하고 있으며 이미 제주 곳곳에 그 영역을 확장하는 중이다. 제주도는 제주에 보물이 묻혀있음을 알리며 다국적 자본의 추격 욕망에 불을 지핀다. 보물지도를 직감한 다국적 자본들은 슬슬 제주에 안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자본들 추격전이 머지 않아 벌어질 태세다. 이미 추격전은 시작됐을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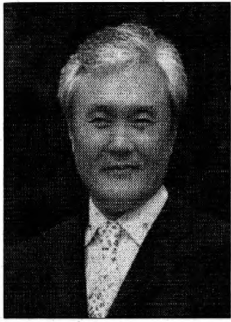
40여년전 레오네 감독은 <석양의 무법자>를 통해 명확히 경고했다. 경제발전 신화는 결국 많은 이름없는 서민

들의 희생만 남을 것이라고 말이다. 40여년 후 현재 우리는 대답하고 있다. <놈놈놈>처럼 경제발전 신화는 판타지를 통해 이어지고 있고, 게임화 되고 있다. 레오네 감독의 경고처럼 현재 벌어지는 광경은 무수한 서민들의 희생을 낳고 있다. 무정부상태를 향한 폭주다. 돈을 향한 추격전 뿐이다. ‘경제발전 신화’를 꿈꾸기에 앞서 <놈놈놈>이 말하는 자본에 가려져 민중주의가 사라지는 현 상황을 명확히 읽어야 한다. 더불어 경제발전 신화의 패악이 담긴 한 거장의 준엄한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이영은 특별기자

무론유설

문화예술은 남의 것 아닌 나의 것 !



이춘기 음악학과 교수

현대인들은 모두가 바쁘다는 말을 하며 살아갈 만큼 과연 바쁘기만 한 것일까?

극한 속의 여유란 말이 있다. 한권의 책, 한편의 시, 명작, 명화를 감상한다던가 아니면 이처럼 아름다운 계절에 음악회를 선택하여 감동적인 콘서트를 찾아가는 여유로운 문화생활은 어떨까? 바로 이런 이상적인 생활은 상당수 많은 도시민들이 기대하고, 누리며 살아간다. 오늘날 문화에 수직어처럼 따라다니는 말 '예술' 스스로가 선택하여 예술을 감상하는 수요자가 되는 것은 최상의 행

복을 누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가자! 우리 모두의 행복을 주는 아름다운 예술의 공간으로...

(1)극장 (예술의 전당이라고 하는 신 개념적 공간) = 연주회, 발레를 포함한 무용공연, 연극 또는 뮤지컬 등의 아카데미한 클래식 제반 공연장. = 문예회관, 읍.면.동 회관, 호텔 연회장, 각급 학교 강당, 각 종교기관이 확보한 공연 공간, 대형급 건축물 내의 공연 및 회의 공간.

(2)광장 (스포츠를 포함하는 대중이 제한받지 않는 공간) = 각종의 게임, 놀이문화 마당, 축제에 포함하는 학생 음악기회를 통한 대중음악의 제반 공연장. = 종합경기장, 애환운동장, 월드컵 경기장, 탐방해변공연장, 신산공원 등 수많은 공연 성격의 오픈 등.

우리나라에는 전국 어느 도시든 각종의 문화시설들을 경쟁이라도 하듯 건립 확보하였다. 극장과 광장시설이 넘쳐나 난무하다 할 정도로 시, 읍, 면, 리까지도 회관 등의 난립 상황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할 때다. 기원전부터 수 천 년 문화

를 사랑하는 유럽 권의 어느 도시와 견주어도 결코 뒤지지 않을 정도로 각종의 공연물들과 회의 및 집회공간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그러나 시설의 활용 빈도는 그들 선진문화 도시들 보다 현저하게 낮는데 시설은 많이 있다. 지금도 지자체들에서는 설계되고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새 시설은 이제 그만 중단하고 오히려 높고있는 기 시설의 합리적 활용 대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전시 행정이란 이를 두고 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공연장에서의 공연이 있으되 관람자는 없는 빈공연장이 많다. 또한 높고 있는 휴면 상태의 시설 공간이 많다는 말이다. 우리도 이제는 수요와 공급이 원만한 조절되어 선진국 수준의 수요자 창출을 돕는 선진 도시형의 제도를 하루 속히 마련하여 가야할 때인 것이다.

관공연단체를 구성 조직하여 혈세로 급여를 지급하는 프로단체가 존재한다면 공연이라는 공공 물량을 생산한다. 생산된 공연이라고 하는 상품의 수요자를 길

러 내는 일은 현 시점의 우리나라로서는 더욱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수요 공급을 어느정도 맞춰 나가야 시장원리에도 부합된다 할 수 있다.

대학과 대학인을 지역사회 문화의 초석이라고 한다. 선진화된 문화의 주인이 되려고 하려면 미래창조를 위하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알기위하여 보고 듣고를 반복하며 우선 생각을 키워야 그 깊고 넓은 의미의 문화적 역량을 얻어 그 방향을 찾게 될 것이다. 서양의 어느 도시에 가나 가까운 동남아시아 어디를 가든 "빨리빨리"란 별명 아닌 별명을 들어본 사람이 많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급한 성격을 지을 수 없다. 빨라서 좋은 점도 있지만 손해를 볼 때가 더 많다. 여유로운 삶은 정신적 건강이 보장되어 육신의 건강까지도 유지시키는 원동력일 것이다.

이때 우리 로맨틱한 클래식 음악을 선택하여 듣고 아름다운 시 한편을 읽는다면 복잡다단한 현실을 유연하게 극복하는 삶의 지혜가 아닐까?

사설

제주대학교를 사랑하십니까?

자기가 속한 기관을 사랑하느냐는 질문은, 답이 너무나 뻔한 질문이기 때문에, 우문(愚問)이라 여겨질 것이다. 그러나 그 뻔한 질문이 왜 나왔을 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또 그 질문이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 제기할 만한 질문인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본다면 그 질문은 우문이 아니고 심각한 좌절에서 나오는 비명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대학 자정능력 없어

최근 제주대학교 구성원으로서 제주대학교를 사랑한다면 할 수 없는 일들을 기꺼이 해내는 사람이 부족 눈에 많이 보인다. 어떤 조직에도 그런 사람들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자체는 분명 골칫거리인 것이 맞지만 큰 문제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런 골칫거리들도 창조된 것이니 이들은 우리가 존재하는 것 만류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적절히 제재되고 통제되지 않는다는 점은 매우 실망스럽다. 심지어 좌절이 느껴지기도 한다.

청정한 환경은 오염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오염물질이 배출되지만 그것이 그 사회의 자정능력(自淨能力)의 범위 안에서 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청정한 상태로 되돌아오게 되는 안정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제주대를 짓밟고 망신시키며 전혀 사랑하지 않으면서 붙어있는 사람들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는 것은 자정능력을 넘어서 오염이라고 부르고 싶다. 우리는 누가 무시하면 격분도 하고 신호등을 켜지 않고 끼어드는 차량에 경적을 울려 응징을 하며 새치기를 하는 사람을 끌어내기도 하는데, 왜 제주대학교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놓아두는 것일까?

우리대학은 총장 임용거부, 일부교수의 길바닥 시위와 인문플레이, 벼랑 끝에 내몰린 재선거 추진, 재선거 일정에 대한 법정소송 등과 관련한 사태가 연일 도내 및 도외 언론에 오르면서 유명대학이 되어버렸다. 그간 행정적, 재정적 손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직접적으로는 재선거를 위해서 사용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비용, 수장의 부재 그리고 그간의 웃지 못할 기이한 행적에 기인하고 있을지

도 모를 각종 예산지원에서의 배제, 공무원의 승진정체 등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

총장출마 각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재선거를 무산시켰던 당사자들은 선거가 60일이 남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보직을 사퇴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총장추천위원회까지 쥐고 흔들려하고 있다. 이러한 오염행위는 과연 어디까지 진행될 지 모를 일이다.

요즘 애완동물이 늘어나고 있다. 개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어떤 이들은 개의 복슬복슬한 털을 사랑하고 또 어떤 이들은 개의 따뜻한 체온을 사랑한다. 어떤 이들은 개의 충직함을 사랑하고 또 어떤 이들은 개의 애교스런 태도를 사랑한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개의 맛을 사랑하기도 한다.

제주대학교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제주대학교의 무엇을 사랑하고 있을까? 아름다운 캠퍼스를 사랑하고 있을까? 교수들을 사랑하고 있을까? 학생들을 사랑하고 있을까?

혹시 우리도 제주대학교의 맛을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니까? 쓸어주고 닦아주고 보듬어 주기 보다 어느 부위를 뜯어먹을지, 어디에 살이 많은지를 살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바라는 제주대학교의 발전이란 것이 뜯어먹을 것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과연 우리는 제주대학교를 사랑하고 있을까? 사랑한다면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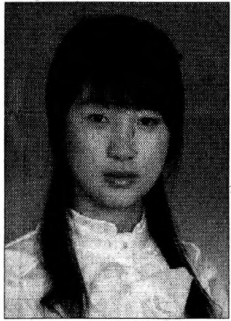
우리는 제주대학교를 사랑해야 한다. 무엇을 사랑하든지 말할 수 없어야 정상이다. 왜냐하면 학교는 우리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자기 몸의 일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듯이 제주대학교도 자신의 일부임을 알아야 한다. 살든지 죽든지, 떠나든지 남든지 그 이름은 평생을 따라다니는 우리의 일부이다.

비뿔어진 무관심도 사랑이 아니다

제주대학교의 맛을 사랑하는 거라면 그것은 비뿔어진 사랑을 하는 것이다. 비뿔어진 사랑과 제대로 된 사랑의 차이는 그 사랑에 제주대학교가 아파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아프게 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아프게 하는 사람을 방치하는 것이다. 자신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라를 사랑할 수 있다. 자기가 속한 집단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한다.

독자기고

큰 사람을 만나 큰 꿈을 꾸다



김은하 경영학과 3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존경하는 멘토이자, 자신 인생의 롤모델이 되어 줄 인물을 만나고 싶어한다. 그 모델을 찾기위해 많은 스승님들을 만나고, 책을 읽고, 매체와 접하면서 각자의 롤모델을 만나게 된다.

나 또한 마찬가지로 책을 읽으며 훌륭한 분들의 이야기를 접하고 존경하며, 그 분들의 삶 속에서 지혜를 배우게 되었다. 그런 훌륭한 분들 중에서도 저진규 선생님은 내 가슴 속에 따뜻하

고 열정적인 무언가를 심어주신 분이였다.

그렇게 훌륭하신 분을 2009년 10월 1일, '내가 터득한 다섯 가지 인생철학'이라는 주제의 '문화광장' 수업에서 만나게 되었다. 그 날은 내 평생 잊을 수 없는 최고의 강연을 듣게 된 날이였다.

내가 그 분을 처음 알게 된 것은,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는 책이었다. 우연히 도서관에서 발견한 책,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습조차 쉬지 않고 단숨에 읽었던 책이 바로 그 책이었다. 구박받는 딸이 미국의 식모로 가서 살다가 갖은 고초를 겪으며 진정한 미국남성들과의 경쟁에서 미국의 소령이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었다. 그 책을 펴낸 이후, 선생님은 미국에서 높은 지위를 마다하시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59세의 나이로 박사과정을 졸업하셨다. 평생동안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시련이 그분을 찾았지만, 끝내 곳곳이 이겨내

셨다.

강연 중 말씀하시길,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 미련이 없을 것이라고 하셨다. 자신에게 찾아왔던 분노, 반항, 오기 모든 것을 기회라 여기셨고, 힘들고 지칠때마다 자신만의 상상력으로 앞으로의 비전을 세우셨다고 했다.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고, 그러한 모든 것의 시작은 내 마음 안에서 부터 출발한다는 좋은말씀도 해주셨다. 또한, 학벌이 아닌 '개인의 인간성'과 '개인의 실력'에서 나온다면서 그것들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라고 하셨다. 마지막으로 작은울타리 안에서가 아닌 세계적으로 꿈을 품고 살아가라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

열정적으로 강의하시고 마지막에 멋지게 노래까지 불러주신 그분의 강연은 나뿐만 아니라 함께 청강하던 친구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렇게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였기에 제주대학교

강당에서 마주보며 강연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강연 내내 가슴이 벅차올랐다.

서진규 선생님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신 문화광장 담당자분들께 너무나 깊이 감사를 드린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더 많은 학생들이 강연을 듣기를 바랐는데 법정대 중강당의 군데군데 좌석이 비어있고 조는 사람들이 있어서 안타까웠다.

강연을 듣고 공연을 보는 문화, 앞으로는 많은 강연자들과 공연팀들이 문화광장을 혹은 다른 경로를 통해 올 것이라 예상된다. 제주대학생으로서 더 관심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앞으로 더 훌륭한 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리라 생각된다.

그 분께서 8년 안에 이루시겠다는 큰 꿈이 난 이뤄지리라 믿는다. 그 8년 안에 나는 어떤 큰 꿈을 꾸고 이루어 갈 것인가. 오늘도 선생님께서 남겨주신 과제를 잘 해결 하리라 다짐해본다.

독자기고

'삶의 의미를 찾아서'를 읽고



문경수 국어국문학과 1

나는 대학교 1학년이다. 어쩌면 지금은 가장 하고싶은 것도 많고 꿈도 넘치고 활기찬 시기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나이 정도가 되면 '나에게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심오한 질문을 던지곤 한다. 많은 고민을 하지만 그 해답은 쉽사리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어느날 나는 직설적인 제목의

책을 봤다.

빅토르 프랑클씨의 작품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이다. 2차 세계대전 중 이 사람이 나치 강제 수용소 아우슈비츠에 갇히면서 겪는 여러가지 일들을 생생하게 남긴 글이다.

어떤 삶의 진리나 철학적인 내용을 담지 않은 책이 아니고 삶의 의미를 찾고 삶 자체가 우리에게 묻는 질문을 해결함으로써 내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무이한 삶의 의미를 알려주는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작가의 직업은 심리학자이다. 이 책은 죽음의 위기를 피부로 느끼며 하루에 빵 한조각, 특식으로는 소시지 한조각, 한겨울에는 그 차가운 강추위에도 누더기만도 못한 옷을 입고 가혹한 노동을 하며 조금 길 기색을 보여도 감독관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당하고

이런 삶을 살면서 사람들의 심리를 관찰하고 그것을 적어놓은 실화라고 할 수 있다.

혹독한 시련을 겪는 이들에게 놀랍게도 점점 심리는 무감각해진다.

그들에게 긴장도 없고 공포라는 것은 이미 잊혀진지 오래다. 생존본능만이 남아있는 그들에게는 색스나 어떤 성적인 행위는 더욱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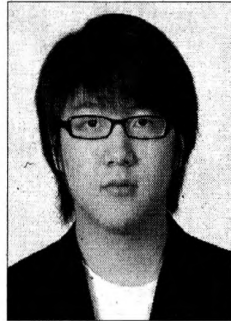
육체는 살아있으나 복잡한 정서적 작용은 하나씩 하나씩 죽어 나간다. 그러나 그들은 살기 위한 몸부림이 남아있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의 심리를 빼앗고 구속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것은 사실 계급주의적인 것을 초월한 것이다. 현실적·육체적 권리는 다들지라도 그 내면의

심리적 권리는 동등하고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형극의 길을 몸부림으로 겪고 수용소에서 해방된 뒤에 이들은 앞으로 두려울 것이 없다. 어쩌면 삶의 의미를 깨달았을지도 모른다.

아쉽게도 이 책에서 나에게 삶의 의미의 확답을 찾지 못했다. 결국 삶의 의미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보편타당성을 지니는 것이라기 보다는 각자 개개인이 다를 수 밖에 없는 상대적인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어떤 사람의 삶이 가지는 특수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에게 삶이란 어떠한 것인지 한번쯤 고민해 본 학생들이라면 부족할 수 있으나 답을 찾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읽어보기 바란다.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강민규 생물학과 1

커닝, 이 단어는 원래 '교활한'이라는 뜻의 단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부정행위'를 뜻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다.

학교에서 공부만하는 모범생이던지 놀기 좋아하는 악동이던지 시험 볼 때 누구나 커닝의 유혹 앞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거나 유혹에 빠져 커닝을 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에서 벗어나 성인이 된 지금, 대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볼 때 유혹을 이기지 못한 몇몇 학생들은 아직도 커닝을 버젓이 하고 있다.

이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라 볼 수 있다. 시험이라는 것은 수업시간에 배운 것을 반복적으로 학습하여 그 지식을 제대로 습득했는지 알아보는 일종의 과정이다. 그 과정을 거쳐 시험점수, 대학교에선 학점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 학점은 대학교 졸업 후에 대학원 진학이나 취업할 시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대학원 진학이나 취업할 시 유리한 고지를 취하기 위해서 즉, 학점을 잘 받기 위해서이다. 그런데에 빠져 커닝을 해본 경험이 있을

볼 때 커닝이라는 부정상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학점을 잘받고 공부한 학생은 상대적으로 학점을 못받게 된다면 이는 공부한 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 큰 불이익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커닝을 하는 학생은 정도(正道)가 아닌 간사한 방법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였기 때문에 커닝의 원래 뜻을 살려 교활한 학생이라 볼 수 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커닝을 하는 학생들보다 불이익받는 것을 막기위해 학교측에서 커닝을 막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건 학생들 자신의 마인드 컨트롤이다.

그렇기에 학생들 스스로가 커닝이라는 것은 다른학생들의 학점을 빼앗는 범죄와도 같은 짓임을 인지하여 커닝을 하지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직접 쓴 글을 여론편에 게재하고, 독자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에 바라는 점이나 제주대신문을 읽고 난 후 느낀점 등 다양한 주제의 글을 보내주시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 이름, 학과 및 계좌번호를 꼭 기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754-2279, press@jejunu.ac.kr 홈페이지 http://www.cnuexpress.com



■ 활짝 피어나라, 한글

위험수위 넘은 '한글파괴' 갈수록 태산

“한글은 실용주의·창조정신의 백미”... 국어문화원이 앞장

1446년 훈민정음이 반포되지 않았다면 현재 우리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을까. 한글은 우리만의 고유한 언어이다.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처음 배우는 언어이며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한글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시대가 변할수록 늘어나는 인터넷용어들과 무리한 줄임말, 순식간에 퍼져버리는 유행어와 신조어들은 젊은 이들과 어른들 사이의 대화를 단절시켜 세대간의 의사소통을 분절하고 있다. 또한 사회는 학생들에게 영어를 강요하고 있어 점차 한글의 의미가 축소되고 이는 한국인이 느끼는 정체성마저 흔란스럽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대학내 한글수준 실태

이런 상황은 대학에서도 마찬가지다. 2008년도 국립국어원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한 국민의 기초 문해력(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조사결과 ‘특성별 몰라서 곤란을 느끼는 말’ 부분에서 전문용어는 젊을수록 이해곤란도가 높게 나타났다. (20대 79.2% 70대 69.2%) 반면 외래어·외국어, 유행어나 신조어는 나이가 들수록 이해곤란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20대와 70대의 격차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20대 29.9% 70대 79.3%) 이는 젊은이들이 새로운 용어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는 반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학술·전문용어에 대한 학습도는 떨어지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즉, 이런 현상의 반박이 교수들과 학생들의 대화에 갈수록 단절되고 있는 현상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인 것이다. 학생들이 잘못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례들은 게시판 내에 적어놓은 글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학교홈페이지 게시판에 학생들이 올려놓은 글들을 찾아본 결과 ‘님아’ ‘~해여’ 등의 인터넷 용어들과 ‘까칠남자’ ‘일올’ ‘갑구’ 등 줄임말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맞춤법 표기도 잘 이뤄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글쓰기 교양과목을 강의하고 있는 김지연(국어국문)강사는 “학생들이 문장 자체 구조의 이해수준이 낮고 맞춤법이 틀리는 경우가 많다”며 “어떤 학생이 내놓은 시험답안에 ‘꼴다’를 못 적어 시험지에 여러 번 연습한 흔적들이 있었는데 결국 틀린 답을 적었던 적도 있다”고 말했다. 또 “사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는 더욱 심한데 나 또한 요즘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이모티콘을 사용한다”며 “글을 주고받으면서 어미를 잘못 바꿔 쓰거나 신조어 등이 많이 발견된다”고 말했다.

인터뷰를 통해 만나본 교수들에게 학생들의 한글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물어본 결과 대다수교수들이 학생들의

한글 수준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경우가 맞춤법 표기와 문장구조 이해 능력이었다.

학생들의 한글수준이 저하된 원인 그중 하나 학생들의 한글 수준이 저하된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 이에 대해 국어문화원 강영봉(국어국문 교수) 원장은 “말을 하거나 문장을 작성하는 데 있어 간편성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원장은 “문자메시지가 활성화 돼 있는 시대에 문자 안에서 하고자 하는 말을 다하기란 어렵다”며 “이런 문제 때문에 말을 줄여 쓰게 돼 사용하는 말들이 원칙 없이 만들어지고 있다. 올바른 국어생활을 하기 어렵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외래어와 외국어가 범람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원장은 “고유 언어인 한글이 기본으로 탄탄하게 뒷받침돼야 영어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우리가 영어로 말한다면 영어로 생각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글을 사용해야 하는 한국인들이 점점 한글을 등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글을 위한 노력 및 개선사항 대학 내에서는 학생들의 한글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국어기본법에 따라 3년 전에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에 인가를 받고 설치된 ‘국어문화원’은 학생들과 도민들이 바른 언어생활을 하는데 있어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졌다. 이곳에서는 국어와 관련한 상담과 올바른 말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실태조사 그리고 제주어 보존과 전승에 관심을 쏟고 있다. 대학의 지원 하에 1학기에는 ‘제주어 말하기 대회’와 2학기에는 ‘외국인 한국어말하기 대회’를 개최하고 제주어를 녹음해 풀어서 책으로 만드는 구술사자료집 작업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어문화원자체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제주국어문화학교’다.

제주국어문화학교는 1년마다 한번씩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이 가장 틀리기 쉽고 지켜지지 않는 한글맞춤법을 중점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올바른 언어생활을 영위하게끔 도와준다. 이외에도 국어국문학과에서는 축제기간 중국문물드넬 코너를 마련해 학생들이 틀리기 쉬운 맞춤법표기나 국어사문제 등 국어와 관련된 문제들을 출제해 쉽게 한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한글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펼치고 있다.

이어 대학 내 한글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국어문화원 강 원장은 “대학 내에서는 영어를 강제적으로 시킬 것이 아니라 국어를 좀 더 강제적으로 시킬 필요가 있다”며 글쓰기 말하기 교육강화와 국어시수를 늘려야 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학생들에게는 “독서량을 많이 가지면 자연스레 표현법을 알게 되므로 가을에 학생들이 많은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한글에 좀 더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도 덧붙여 한글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문화화 기자

■ 세계디자인 3개 대회 석권한 전성수 교수팀

“제주를 디자인의 메카로”

‘멀티디자인 드림팀’ 레드닷 3연속 수상



오른쪽부터 전성수 교수, 김기필 교수, 구자운 강사, 이태훈 4, 강주형 4)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바로 팀워크입니다. 팀워크 없이는 훌륭한 디자인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전성수 교수팀(산업디자인학과 멀티미디어디자인전공 지도교수 전성수·김기필·구자운 교수, 김준현, 이태훈, 강주형 학생)이 세계디자인 3개 대회 석권(독일 레드닷, 2009 미국 IDEA, 2008, 2009 미국 디트로이트 미쉐린 자동차 디자인공모전 2년연속 수상),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3년연속 수상 등 빛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 9일 제주대의 이름을 세계 곳곳에 알린 전성수 교수팀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전 교수팀이 세계대회에 도전하게 된 계기는 제주를 주제로 제주대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처음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수상은 대학은 물론 지역사회에서도 크나큰 이슈가 됐고, 수상에 대한 축하와 함께 우연이라는 외부의 질투어린 시선도 함께 따라왔다. “여러가지 이야기가 많았지만, 우리 팀에게는 아무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았습니디. 가능성을 확인한 이상 세계대회에 대한 팀원들의 노력은 끊이지 않았습니디”

연이은 레드닷 세계대회의 수상은 매우 힘든 과정이었다. 이제 막 디자인을 배우가는 학생들을 하나하나 가르치며 세계 유수의 디자인들과 경쟁할 작품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전 교수팀이 디자인작품을 하나 완성하는 기간은 대략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다. 교수, 학생 모두 밤낮을 모르고 진행되는 디자인 작업을 계속했다. 수십 번의 프리젠테이션 과정을 거치고, 완벽할 때까지 작품 수정은 끝까지 않았다. “모두가 공감하는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으로 완벽

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만드는 프리젠테이션을 교수들이 계속해서 평가하는데, 그 순간만큼은 같은 팀이 아닌 심사위원의 눈으로 보자는 원칙을 세웠습니디.”

전 교수팀은 디자인작품을 만드는데 있어서 누구든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교육자이자 리더로서 행동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리더는 팀원들과 함께 작업하는 것은 물론, 항상 확신을 주기 위해 동기부여의 과정을 계속해야 합니다.”

전 교수팀은 현재 국제공공디자인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국제관광지인 제주의 특성상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 디자인 산업을 육성하기에 최적지의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주의 환경에 맞는 친환경적 공공디자인을 조성해 가야 합니다. 이제는 도 자체에서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디자인 위원회의 조직, 디자인과의 신설 등 정책수립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전 교수의 목표는 미국 MIT대학처럼 디자인을 통한 산업화로 산업과 대학에 기여하는 것과 제주특성에 맞는 공공디자인의 구현이다. 현재 전 교수팀은 세계대회에 입상한 디자인들의 특허출원을 마쳤으며, 이를 바탕으로 산업과 대학의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20년간 제주대에서 교육하며 수많은 학생들의 가능성과 꿈을 봐 왔습니디. 앞으로 꿈을 이루는데 있어서 제주에서 안 된다는 기존의 생각들을, 제주시 때문에 된다는 생각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박종건 기자

제주대 신문사 < 57기 수습기자 > 모집

제주대 신문사에서 완전 소중한 새내기 57기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수습기자가 되면...

A급 장학 혜택 장학금 및 취재료, 원고료, 식비 제공

다양한 취재 기회 제공

(미국, 일본, 중국, 광주, 백두산 등 취재, 국내외 다양한 기획 취재 및 연수 기회 제공)

전자기기 제공

개인 데스크 및 취재용 카메라, 편집용 매킨토시기기

현직기자 에게 배우는 기자 교육 및 실습

(보도기사작성에서 보도사진 등 까지)

매킨토시 를 이용한 신문편집교육

모집대상 : 아라캠퍼스, 사라캠퍼스 09학번 학생

장소 : 본관 동쪽 직업능력개발원 계단 3층에 위치한 언론출판센터 내 제주대 신문사

원서마감 : 11월 7일 토요일 까지

문의 : 제주대신문사 (754-2279, 010-6776-8277)

